

3255 (3265)  
114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南北韓語 語彙에 對한

## 形態論的 · 意味論的 比較 研究

- 異質化의 原因分析 및 그 統一의 對策을 摸索하며 -

研究執筆 全 在 昊 (慶北大 教授)  
                  洪 思 滿 (慶北大 教授)

刊行責任 徐 成 雨 (調查研究室 補佐官)

한글이  
상표한글이리  
" 언어학  
"           대사

###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I. 序 言 .....	3
II. 語彙 形態의 相異性 對比.....	7
1. 固有語化된 語彙 .....	7
2. 位相的 差異로 特殊化된 語彙 .....	17
가. 政治·經濟·社會的 位相 .....	18
나. 地域的(方言差) 位相 .....	19
다. 言語狀況的 位相 .....	23
3. 文法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	27
가. 派生法·合成法 .....	28
나. 被動法·使動法 .....	36
4. 音韻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	38
III. 語彙 意味의 相異性 對比 .....	43
1. 縮小( narrowing ), 特殊化( specialization ) .....	43
가. 金日成 偶像化에 따른 特殊化 .....	43
나. 革命·建設事業에 關聯된 特殊化 .....	48
다. 政治宣傳 및 資本主義의 비난을 위한 特殊化 .....	56
2. 擴大( widening ), 一般化( generalization ) .....	61
3. 提喻( synecdoche ) .....	62
4. 格上·上昇化( elevation ) .....	63
5. 格下·墮落化( degeneration ) .....	65
6. 隱喻( metaphor )·象徵化( symbolization ) .....	75
7. 退化·轉訛( corruption ) .....	79

IV. 異質化의 樣態 및 原因分析 .....	81
V. 言語統一의 展望과 그 對策 .....	90
VI. 結 言 .....	94
參 考 文 獻 .....	97

## I. 序 言

言語는 생명있는 有機體이며, 言語社會와 긴밀한 函數關係를 맺고 끊임없이 進化한다. 言語는 人爲的이든 自然的이든 社會構造의 力學的作用을 받으면서 新生, 成長 또는 死滅한다. 言語의 變化는 通時的인 時間性を 前提하고 있는 歷史的 產物이다.

그러므로 어느 社會集團의 言語變遷相을 충실히 記述한다는 것은 그 社會構造의 全面을 把握하는 結果가 된다.

本稿는 分斷 35年이 가져다 준 南北言語의 異質性에 대한 研究로서, 특히 語彙語形(form)과 意味(meaning)의 異質化 樣態와 그 程度를 分析·考察하고, 原因分析을 通해 尙차 言語統一의 展望과 對策을 摸索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念願인 南北統一의 길을 追求하고자 함에 目標을 두고 있다.

실제로 35년이란 言語隔離의 期間은 通時的인 歷史性에 의해 自然스런 言語의 變化를 誘發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期間이나, 이 짧은 期間에 同一言語가 이처럼 많은 異質化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필시 北韓의 人爲的이고 強制的인 異質化 政策이 수반되었음을 豫想케 한다.

우선, 南北間의 言語觀을 比較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觀點差가 있다.

北韓의 言語觀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
- ②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
- ③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
- ④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활동하면서, 사상·감정을 나타내며 서로

의 뜻을 전달·이해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수단·매개

⑤ 인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의 무기

위의 규정 중 ⑤는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이 배제되고, 언어외적 요소인 정치나 투쟁의 도구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비해 南韓에서의 言語定義는 간결하면서도 言語自體의 本質的인 特性만을 提示하고 있다.

‘ 言語란 사람의 思想·感情을 나타내는 音聲의 符號이다 ’

참고로 미국의 言語學者인 Sturtevant의 一般言語學的 言語定義를 덧붙여 보면, 역시 言語本質的인 特性과 機能, 특히 社會性만이 言及되었을 뿐이다.

‘ A language is a system of arbitrary vocal symbols, by which members of a social group cooperate and interact. ’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Science ( 1947 ) p. 2

뿐만 아니라, 北韓이 言語를 政治的 유희물로 利用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北韓에서 맹렬히 推進되고 있는 文化語 政策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그들이 論及하고 있는 文化語의 性格을 뽑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는 언어
- ②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풍부하게 발전한 민족어
- ③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언어
- ④ 당과 수령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을 구현한 언어
- ⑤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말
- ⑥ 가장 발달한 아름다운 언어

위에서 ②③④⑥은 소위 標準語의 규정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들이며,

言語를 革命과 階級鬪争에 관련시키고 김일성 개인 尙상화의 方편으로 삼고 있는 ③④는 北韓言語가 政治宣傳의 道具로 轉落되고 있다는 事實을 확연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北韓의 言語研究가 주로 反論的(anti-theoretical)이며 民族主義的, 분위기(nationalistic mood)를 자아내는 것에 局限된다고 한 W.Sasse의 指摘과도 相通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言語學者들의 言語研究는 주로 文法標準化, 同音語문제, 表記法, 方言문제, 漢字語, 外來語 폐지, 新造語 등이 中心課題였다.

北韓의 定期刊行物의 內容으로부터 抽出해 낸 Sasse의 要旨를 引用 하면 다음과 같다.

- theoretical papers as to the basic nature of language.
- papers to standardize grammar.
- papers on how to standardize the vocabulary by discussing homonyms and near-homonyms, finding the right word for a given referent, a.s.o.
- papers on problems of the write convention.
- appeals to collect dialect words and reprinting of lists of such with the aim of finding word stem for new words.
- discussing problems raised by the aboli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writing.
- question-and-answer section.
- lists of newly coined words and phrase ( and subsequent discussions of some items in the lists )
- papers on the abolition of loan words and related

problems.

- papers on methods of inventing new words.

言語의 正常的인 變化는 成長과 發展을 의미한다. 그러나 南北韓語의 異質化는 北韓의 人工的인 劃策에 緣由된 것이므로 결코 成長이라 할 수 없다. 더우기 말로는 言語統一 운운하면서도 실제로 異質化를 深化시키는 그들은 마치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외치면서 내면으로는 南韓의 瓦解·分裂을 策動하는 수법과도 흡사하다.

國土가 民族의 有形한 몸집이라면, 言語는 民族의 無形한 몸집이다. 民族統一과 國土統一은 言語統一과도 불가분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北韓은 自覺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 筆者는 종래 論究된 語形의 異質性보다는 意味의 異質性을 중점적으로 高찰하려고 한다. 이는 言語에 있어서 形式인 語形보다는 內容인 意味가 重視되어야 하며, 意味는 言衆의 心理 속에 면면히 스며 있는 抽象的 要素이며, 言語統一의 문제에 있어서도 語形보다는 더 難題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Ⅱ. 語彙形態의 相異性 對比

### 1. 固有語化된 語彙

1964 년과 1966 년의 두 차례에 걸친 김일성 敎示를 통해 전개되어 온 北韓의 이른바 「어학혁명」은 주로 語彙의 醇化作業에 국한된 言語政策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에까지 推進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外來語 및 漢字語를 拂拭하고 民族의 固有한 語彙를 되살려 보자는 主体意識에 結付된 것이었다. 이는 최근의 김일성 敎示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말의 주체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힘은 한자말과 외래어를 없애고, 고유한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하나의 혁명적인 변혁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어학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말과 글이 걸어온 영광의 10년 )

<문화어 학습, 1980년 4호>

어쨌든 固有語 開發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醇化(말다듬기)運動은 南北韓 共히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벌여온 것으로, 現在 時点에서의 兩方의 差異는 그 方法과 程度의 差에 不過하다 할 것이다.

이 운동은 今後로도 南北韓이 공히 국어 속에 우리의 것을 發掘하고 남의 것을 排除하려는 主体的인 新語創造事業으로 계속 전개될 터인데, 피차 統一性 없는 新造語의 濫造 때문에 兩方의 語彙隔差를 더욱 深化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絶실해 진다. 이러므로 兩方에서 醇化의 目標, 基準, 方法에 있어서 同一 보조가 要求되는 現實인데, 우선 北韓語의 語彙醇化 實態를 살펴 보겠다.

## 가. 日常生活語의 開發

北韓語의 말다듬기의 근본이념은 民族 및 主体思想 그리고 소위 主体的 言語思想의 創始者라는 김일성과 抗日鬪爭의 시대적 배경을 결부시키는데 특징이 있다. 固有語와 漢字語가 공존할 때는 固有語로, 적당한 固有語가 없는 外來語는 漢字語로 쓴다는 醇化方向은 南韓語에서도 동일한 원칙인데, 여기에 김일성의 主体言語思想 운운으로 塗飾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말다듬기에 대한 北韓言語學者들의 論文은 그 대부분이 김일성을 論題에 露出시키고 있다.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은 조선어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 위대한 수령의 육친적 지도 밑에 진행된 항일유격대원들의 모국어 학습 /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영도하시어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내고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었다 / 김일성 동지의 가르침 따라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자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 언어사상의 창시자이시다 /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서 자라온 우리 강좌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국어교육분야에서 활짝 꽃피우자 /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언어사용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 배우자 /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말과 글을 쓰기 위한 운동에서 제일조선학생들이 거둔 눈부신 성과」

다음 語彙들은 北韓에서 다듬어진 생활용어이다.

가을걷이 (秋收)

그림등 (幻燈)

공기갈이 (換氣)

달품 (月給)

굳히기 (定着)

미리값 (豫賣)

미리알림 (豫告)

무섭증 (恐怖症)

물들이기 (染色)

받는데 (接受處)

비취보기 (透視)

불타기 (燃燒)

빈터 (空地)

소먹이군 (牧童)

얼굴모습 (容貌)

젖엄마 (乳母)

큰물 (洪水)

줄엉킴 (混線)

꽃댕기 (리본)

누비듯자리 (다다미)

물맞이칸 (샤우어실)

창문보 (커어튼)

미리막이 (豫防)

몸바침 (獻身)

불도장 (烙印)

바람물결 (風波)

본보기 (標本)

북잡이 (鼓手)

소금밭 (塩田)

손님맞이방 (応接室)

잊음증 (健忘症)

젖떼기 (離乳)

퍼짐 (拡散)

통짜 (一切)

내민대 (발코니)

들모임 (피크닉)

소리판 (레코드)

#### 나. 分野別 專門用語

北韓의 專門用語 다듬기는 1966년 이래 18개 분과위원회(의약품, 금속, 생물학, 자연과학, 건설수리, 전기체신, 기계, 경공업, 상품이름, 문학 예술, 사회과학, 체육, 수산해양, 운수, 지질광업, 임학, 일반)가 결성되고, 여기서 연구토론을 거친 결과 사정되었는데 분야별로 친숙한 語例들을 들어 보이겠다.

< 言 語 >

거친소리 (激音)

겉터짐소리 (外破音)

닫힘소리 (閉鎖音)

스침소리 (摩擦音)

입술소리 (唇音)

혀소리 (舌音)

울림소리 (有聲音)

긴소리 (長音)

소리마디 (音節)

소리닮기 (音同化)

홀모음 (單母音)

열린마디 (開音節)

보탬말 (補語)

세움말 (主語)

보임말 (提示語)

느낌문 (感嘆文)

입음상 (被動態)

말뿌리 (語根)

덧붙이 (接辭)

뒤붙이 (接尾辭)

맺음토 (終結助詞)

모양본딴말 (擬態語)

소리본딴말 (擬聲語)

순한소리 (平音)

속터짐소리 (內破音)

터짐소리 (破裂音)

터스침소리 (破擦音)

코소리 (鼻音)

목구멍소리 (喉音)

안울림소리 (無聲音)

마디소리 (分節音)

소리값 (音價)

소리바뀜 (音變)

겹모음 (二重母音)

닫힌마디 (閉音節)

부름말 (呼稱語)

끼음말 (插入語)

시킴문 (命令文)

제힘상 (能動態)

첫째췌 (一人稱)

말줄기 (語幹)

앞붙이 (接頭辭)

합친말 (合成語)

도움토 (補助詞)

소리같은말 (同音語)

새말 (新語)

준말(略語)

모양글자(象形文字)

끝소리(終聲)

되풀이법(反復法)

물음표(疑問符)

<數 字>

같기식(等式)

안각(內角)

쳐든각(仰角)

더하기(合算)

드림선(行垂線)

자름선(切線)

자름넓이(斷面積)

두리기둥(圓柱)

최대값(最大值)

참분수(眞分數)

바꿈법칙(交換法則)

사이넣기법(代入法)

<經 濟>

세운돈(積立金)

꾼돈(借入金)

꾸어준돈(貸付金)

내기(出庫)

돈내기(出金)

거둠률(回收率)

낮은말(卑語)

낱소리글자(音韻文字)

내려쓰기(縱書)

바로풀이법(直說法)

움김표(引用符)

여러마더식(多項式)

바깥각(外角)

사귄각(交叉角)

덜기(除算)

닿이선(接線)

겉넓이(表面積)

바른각기둥(正六面體)

원둘레(圓周)

두제곱뿌리(제곱根)

대림분수(大分數)

거꾸셈법(逆算法)

열올림법(十進法)

밑돈(基金)

미리준돈(前渡金)

어김돈(違約金)

들이기(入庫)

본값(原価)

나눔몫(分配量)

< 音樂 · 美術 · 文學 >

소리표 (音標)

소리너비 (音域)

돌이 (옥타아브)

노래이야기 (오페라)

치는줄악기 (打絃樂器)

검밝기 (明暗)

앞경치 (前景)

그림첩 (畫帖)

구운흙 (테라코타)

옮겨지음 (脚色)

엮음새 (構成)

에두름법 (婉曲法)

비양 (아이러니)

< 物 理 >

견줄무게 (比重)

튀힘 (彈力)

빛느낌도 (感光度)

빛묶음 (光束)

빛축 (光軸)

선늘음 (線膨脹)

부피불음 (體膨脹)

전기마당 (電場)

흐름선 (回線)

소리사이 (音程)

고른소리 (樂音)

녀성고음 (소프라노)

손풍금 (아코오디언)

밝음도 (明度)

사람그림 (人物畫)

그림버티개 (畫架)

토막생각 (斷想)

이음시조 (連時調)

갈래 (장르)

결애기 (에피소우드)

끌힘 (引力)

튀성 (彈性)

빛흐름 (光流)

빛샘 (光源)

빛모으개 (集光器)

열늘음 (熱膨脹)

자기마당 (磁場)

자력묶음 (磁束)

흐름길 (回路)

소리빛깔 (音色)

들이량 (容量)

견증열 (比熱)

바침도 (照度)

모임점 (焦点)

사진종이 (印畫紙)

물결길이 (波長)

물결모양 (波形)

물결움직임 (波動)

꺾임률 (屈折率)

꺾임광선 (屈折光線)

<天文·氣象>

옹근해가림 (皆既日蝕)

부분해가림 (部分蝕)

고리해가림 (金環蝕)

달가림 (月蝕)

별찌 (流星)

해가까운점 (近日點)

해먼점 (遠日點)

해길 (太陽路)

층더미구름 (層卷雲)

행성별구름 (行星雲)

찬전선 (寒冷前線)

머문전선 (停滯前線)

산골바람 (谷風)

바다바람 (海風)

우뢰비 (雷雨)

<地学·地理>

땅껍질 (地殼)

깨바위 (花崗岩)

흙기둥 (土柱)

화산줄기 (火山帶)

덧은화산 (休火山)

탄밭 (炭田)

벌창질 (汎濫期)

안바다 (內海)

옛강바닥 (旧河床)

높은물높이 (高水位)

같은높이선 (等高線)

같은깊이선 (等深線)

날자바뀜선 (日字變更線)

뜨거운바람 (熱風)

<生物·化学>

홀잎 (單葉)  
 여러해살이 (多年生)  
 모습같이 (變態)  
 더듬뿔 (觸角)  
 붙어살이 (寄生)  
 풀림질 (溶解)  
 떠흐림액 (懸濁液)  
 젖흐림액 (乳濁液)  
 엉겨맺히기 (凝結)  
 실험고뿌 (비커)

헛뿌리 (虛根)  
 꽃가루받이 (受粉)  
 새끼벌레 (幼虫)  
 뒤뻐 (後腸)  
 풀림약 (溶液)  
 바래기 (漂白)  
 엉겨굳기 (凝固)  
 엉겨붙기 (凝集)

<農学·林学·畜産·蚕系>

거름농이 (施肥)  
 비탈갈이 (斜耕)  
 띄어뿌리기 (点播)  
 그루바꿈 (輪作)  
 홀그루 (單作)  
 뒤그루 (後作)  
 벼 훑기 (脱穀)  
 문힘약 (接觸劑)  
 알낱이닭 (産卵鷄)  
 숲나이 (林齡)  
 고치고르기 (選繭)  
 고치실켜기 (繰絲)

애벌갈이 (初耕)  
 넓이뿌리기 (広播)  
 두그루짓기 (二毛作)  
 그루돌림 (交互作)  
 앞그루 (前作)  
 마당질 (打作)  
 마른논불임 (田作)  
 보탬약 (添加劑)  
 먹이 (飼料)  
 섞인숲 (混成林)  
 고치말리기 (乾繭)  
 고치 따기 (收繭)



<交 通>

거닐길 (遊歩道)

검남선 (橫断線)

짐 (貨物)

얼굴차 (冷凍車)

차마당 (駐車場)

마감역 (終着駅)

견인능력 (馬力)

<水産・海洋>

고기배 (漁船)

배길 (航路)

물결높이 (波高)

기슭물결 (海岸波)

더운말흐름 (暖流)

비탈흐름 (傾斜流)

물깊이지도 (水深圖)

<体 育>

첫차기 (始蹴)

문그물 (得点網)

집단체조 (매스게임)

진연락 (롱패스)

쳐넣기 (슈우트)

모서리빨 (코오너킥)

못신 (스파이크)

두름길 (迂回路)

다님표 (運行票)

지붕차 (有蓋車)

차갈이 (換車)

처음역 (始發駅)

차가름역 (操車場)

고기소 (漁場)

물결길이 (波長)

바람물결 (風波)

찬물흐름 (寒流)

겉중흐름 (表層流)

맑음도 (透明度)

고기떼찾기 (魚群探查)

맨몸체조 (徒手体操)

역이어달리기 (駅伝競走)

순간타격 (스파이크)

속임동작 (페인트)

던지기빨 (서어브)

중앙으로껴어차기 (센터링)

< 医 学 >

마디 (關節)	들어보기 (聽診)
홀어보기눈 (亂視)	바투보기눈 (近視)
가슴샘 (胸腺)	몸피돌기 (體循環)
피오줌 (血尿)	피물 (血清)
피진 (血漿)	피얼룩이병 (血斑病)
따라난명 (合病症)	배막염 (腹膜炎)
숨대염 (氣管枝炎)	위궤양 (胃潰瘍)
위쳐지기 (胃下垂)	돌림감기 (流行感氣)
균죽이기 (殺菌)	열내림약 (解熱劑)
설사멧이약 (止瀉劑)	

이상의 專門用語 中에는 지나치게 音節이 길어져 言衆들의 共感을 얻기 어려운 어휘들도 많고 (예 : 소리같은말 (同音語), 바로풀이법 (直說法), 여러마디식 (多項式), 물결움직임 (波動), 해가까운점 (近日點), 고치실켜기 (繰絲), 더운물흐름 (暖流), 바투보기눈 (近視), 중앙으로꺾어차기 (센터링) 등), 語彙內的 音節 전체가 固有語化하지 못하여 漢字語와 雜種이 된 어휘도 많이 보인다 (예 : 열내림약 (解熱劑), 설사멧이약 (止瀉劑), 견인능력 (馬力), 우뢰비 (雷雨), 비침도 (照度) 등)

이밖에도 생소한 造語法이나 語感이 좋지 않으므로 言衆들에게 受容度가 낮은 어휘들도 제법 많다 (예 : 고기소 (漁場), 알낱이닭 (産卵雞), 마감역 (終着駅), 견줄무게 (比重), 튼성 (彈性), 거꿀셈법 (逆算法) 등)

이런 식의 억지造語가 濫造되고 있는 한편, 英語系 語源의 外來語는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고 多量 쓰이고 있는 것이 北韓言語의 현실이다. 다음의 語例들은 北韓社會에 土着화된 日常外來語이다.

가스, 골덴, 골프, 그람, 글리세린, 나이론, 노트, 니스, 니크롬, 니켈, 니  
 꼬젠, 네온, 넥타이, 다이내마이트, 다이아, 다이알, 도마도, 도크, 드릴, 디  
 젤, 디프테리아, 라지오, 라이타, 레루, 로라, 로켓트, 로타리, 리듬, 레몬,  
 레코드, 렌즈, 마라손, 마이크, 마일, 마크, 맘마, 맘모스, 모터, 메달, 뽏트,  
 뽏프, 바리톤, 바테리, 바이올린, 발레, 발브, 보이라, 볼트, 뽏스, 브라우스,  
 브로치, 블로크, 비닐, 비무스, 비스켓트, 비타민, 사이다, 샤마니즘, 샤쯔,  
 삼팡, 스키, 스테트, 스케치, 스케트, 스틸, 스폰지, 스프, 스프링, 스위치,  
 자즈, 자케트, 재트, 초콜레트, 츄립, 첼로, 카드, 카메라, 커피, 코스모스,  
 크림, 타올, 타일, 탱크, 테너, 테프, 텔레비죤, 팔프, 피아노, 필림, 프리즘,  
 휴즈, 아파트, 악센트, 에네르기, 엔진

## 2. 位相的 差異로 特殊화된 語彙

南北韓은 현재 政治的·思想的·理念的 差異로 國土가 分断되고 相  
 互 敵對視하는 悲運속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諸与件은 兩方の 社会構  
 造와 制度에 있어서도 變異를 招來하게 된다.

더우기 北韓에서는 言語가 政治的인 道具로 利用되고 있기 때문에,  
 語彙면에서도 그들 集團의 政治理念이나 經濟現象이나 社会制度에 符合  
 되도록 人爲的 또는 自然的으로 變貌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韓  
 에서는 볼 수 없는 政治, 經濟, 軍事, 社会用語들이 個人的 담화 党政  
 策 樹立 가운데 新造語로 탄생되어 住民들의 강제적인 使用을 通해  
 一般化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言語는 社会的 所産이니만큼 政治体制나 構造가 다른 두 異質社会集  
 團 속에서 그 位相的 差異에 의해 異形화된 特殊語가 派生된다는 것

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地域的 位相인 方言差에의 南北韓語는 相互 많은 語形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言語를 驅使하는 言衆의 慣習에 따른 表現들도 兩方이 적지 않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 가. 政治·經濟·社會的 位相

北韓의 共產主義 政治体制와 마르크스·레닌의 社會主義를 추종하는 經濟制度와 革命課業 및 建設事業을 指向하는 人民들의 閉鎖的인 社會構造는 그에 副應하는 여러 特殊語를 要求하게 되었다. 특히 김 일성의 偶像시와 黨 유일사상의 高조를 위해 새로 造語된 特殊語彙는 崇高한 言語가 政治적인 유희물로 전락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好例가 된다.

「조선문화어사전」에 登載된 이러한 어휘만도 수 천에 달하는데, 그 중 몇개씩을 골라서 擧例하기로 한다.

##### <政治用語>

「정치로선, 정치사상적 통일, 정치적 군대, 전투정치훈련, 로력영웅, 붉은편지, 상층통일전선, 자주로선, 정치사상사업, 정치적 투쟁」

특히 이들은 정치술어 가운데 「운동」이란 말을 즐겨 쓰는데, 얼핏 눈에 들어오는 것만을 들어봐도 많이 있다.

「새별보기운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농민운동, 붉은기중대운동, 로동운동, 붉은별따기운동, 혁명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반일민족해방운동, 반전운동, 민족해방운동」

##### <經濟用語>

「가격일원화, 가격계획화, 가치형태, 경제의 군사화, 간접로동, 간접로력, 결정적담보, 경제관리체제, 경제모연공작, 경제범주, 경제투쟁, 공동소비폰드,

공동축적펀드, 분배법칙, 물질적부]

<軍事用語>

[간부군대, 군대놀이, 관병일치,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투놀이, 전인민적방위체계, 준전쟁시기]

<社會建設・革命用語>

[방식상학, 밭머리총회, 가정혁명화, 간부사업, 경험교환회, 고정적로력협조반, 공무동력직장, 공부놀이감, 공장대학, 긍정감화교양, 계급로선, 계급적각성, 계급정책, 농촌문화혁명, 령도예술, 소년궁전, 전면적기술개선, 천리마대고조, 청산리정신, 밥공장, 어머니공장]

이상의 特殊用語들은 南韓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생소한 語彙들이다. 이는 그들의 구호처럼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서의 言語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인민을 革命的으로 고무하고 사회주의 공산투쟁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方便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나. 地理的(方言差) 位相

현 北韓땅은 낭림산맥을 분수령으로 하는 동부권(함경도)과 서부권(평안도) 사이의 地域的인 隔離와 對峙 對中共관계의 政治力學的 与件과, 특히 地域間的 閉鎖性 등으로 말미암아 그 方言圈에 따른 言語隔差는 클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文化語가 平壤말을 中心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文化語辭典에는 함경도 方言이 登載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반해 南韓은 근자에 와서 전지역이 1日 생활권이 되고, 지역간에도 출입과 접촉이 빈번하고 특별히 T.V등의 매스콤 영향으로 固有한 方言이 退任・消滅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폐쇄적인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方言은 아직도 그 固有性과 保守性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에 따라 南北韓語는 地域的 方言差에 의한 語彙의 異質性도 현저하게 대두된다.

「조선문화어사전」에 記載된 方言語彙 가운데 뚜렷한 것을 뽑아 그 것을 品詞別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名詞類>

- |                |             |
|----------------|-------------|
| 가다리굴 (가지굴, 곁굴) | 고기마톡 (고기국물) |
| 기와깨미 (기와)      | 귀박죽 (귀바퀴)   |
| 내굴 (내)         | 더수미 (덜미)    |
| 도드라기 (두드러기)    | 동살 (겨울)     |
| 두리 (둘레)        | 되박 (되)      |
| 떡다시 (떡살)       | 망돌 (맷돌)     |
| 무닭 (장닭)        | 별짜 (별일)     |
| 냄 (전송)         | 번대머리 (대머리)  |
| 강보리밥 (콩보리밥)    | 머드레 (그루콩)   |
| 눈찌 (눈매)        | 불범 (표범)     |
| 비그이 (비피하기)     | 비위짱 (비위)    |
| 사달 (사고, 탈)     | 삿뻬지 (삿자리)   |
| 상통 (상판)        | 솔검댕이 (솔검정)  |
| 수더구 (술)        | 시켄 (시집쪽)    |
| 쌈고, 쌈치 (쌈)     | 자짱지 (장아찌)   |
| 잔등패기 (잔등이)     | 점심괵 (도시락)   |
| 정지 (부엌)        | 주막다시 (주먹)   |
| 조박 (조각)        | 뽕 (뽕)       |

게사니 (거위)

궁냥 (생각, 궁리)

노라리 (전달)

진소리 (실없는 소리)

젠걸음 (빠른 걸음)

터돌 (주춧돌)

까박 (말대꾸)

부루 (상추)

노날 (노끈)

맥살 (기운, 힘)

재밤중 (한밤중)

참속 (참마음)

회파람 (휘파람)

어방 (어림)

< 動詞・形容詞類 >

궁겁다 (궁금하다)

그쫘하다 (그든하다)

개잘싸하다 (너질하다)

노느다 (나누다)

다우치다 (다그치다)

두간하다 (드물지 않다)

모둥키다 (모아 응키다)

말썰다 (거북하다)

미끌다 (미끌어지다)

답새기다 (때리다)

불그렛하다 (불그레하다)

사려물다 (이를 악물다)

서느럽다 (서느렁다)

서뿌르다 (서투르다)

성칼지다 (성깔이 있다)

수겁다 (수줍다)

그니럽다 (근지럽다)

기우드름하다 (가웃드름하다)

긱다 (기침하다)

내구럽다 (맵다)

동메다 (동떨어지다)

맞맞다 (꼭 맞다)

모대기다 (몸을 뒤틀다)

메사하다 (쑥스럽다)

개채없다 (채신없다)

부잇하다 (부유스럽하다)

비속하다 (비슷하다)

서겁다 (섭섭하다)

서땀벌하다 (마음이 덜떠 있다)

설하다 (설사하다)

송그리다 (몸을 오그리다)

숙보다 (엷신여기다)

슴슴하다 ( 심심하다 )

자래우다 ( 기르다 )

절구다 ( 절이다 )

갈람하다 ( 가름하다 )

무연하다 ( 무질서하다 )

마스다 ( 망가뜨리다 )

다발다 ( 짧고 발다 )

간고하다 ( 어렵고 고생스럽다 )

편역들다 ( 편들다 )

흙뜨다 ( 부름뜨다 )

시살스럽다 (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

잘망긔다 ( 알망스럽다 )

가렬하다 ( 맹렬하다 )

꿀꿀하다 ( 깨끗하다 )

무으다 ( 조직하다 )

고아대다 ( 소리를 지르다 )

무지다 ( 쌓다 )

즘줍하다 ( 뜸하다 )

허거프다 ( 속이 비고 어이없다 )

얼뻘하다 ( 어리병병하다 )

< 副詞類 >

망창 ( 마구 )

결씨 ( 어서, 빨리 )

장창 ( 늘, 언제나 )

무등 ( 무척 )

지내 ( 너무 지나치게 )

지어 ( 더 나아가 )

허턱대고 ( 허칭대고 )

무중 ( 갑자기 )

고즈너기 ( 고스란히 )

점도록 ( 저물도록 )

주런히 ( 가지런히 )

지씨 ( 끊기 있게 )

하냥 ( 같이 )

여직 ( 여태 )

한편 北韓方言 가운데는 古語의 殘滓를 아직껏 維持하고 있는 語形들도 있다.

가시 어머니 ( 丈母 )

가시 아버지 ( 丈人 )

별하다 ( 特別하다 )

허물하다 ( 허물로 탓하다, 꾸짖다 )



위의 語形들은 다음에 提示하는 古語가 維持된 形態이다.

- 妻는 가시다 <月積 1:12 >
- 別爲所有去等 (別호바 잇거든)

<吏說>

別爲無亦 (別호거 업시)

- 허물홀 견 (謹) <字會下: 29 >

#### 다. 言語狀況의 位相

慣用語 ( idiom )는 한 言語에 있어서의 特有한 表現方法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生成되는 要因으로는 言衆이 평소에 구사하던 表現方法으로는 부족을 느끼게 되어 새롭고 적절한 表現形態를 要求하는데 있다. 당초에는 臨時語 ( nounce form )의 形態로 나타나지만 言衆들이 유사한 言語場面에서 즐겨 애용함으로써 하나의 공통된 의미단위로 通用될 때 慣用語는 成立되는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形成된 慣用語 중에는 南韓과 形態나 意味構造가 유사한 것도 많으나, 兩斷의 異質化된 言語社會는 慣用語의 變異도 초래하여 많은 相異語들을 産出시켜 놓았다.

慣用語는 대체로 ① 故事 ② 古語 ③ 世界特殊用語 ④ 比喩적인 것 ⑤ 強意化 ⑥ 柔軟化 등과 關係를 맺고 있는데, 北韓語에서 새로 形成된 慣用語들은 故事나 古語와의 關係는 적으며, 그들의 高립적 폐쇄된 社會 속에서 人民들이 世界의 特殊用語를 接觸함으로써 形成될 可能性도 희박하며, 주로 比喩적인 것과 強意化的 影響을 받음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北韓語의 慣用語 중에서 南韓과는 表現的 差異를 보이는 것을 사

전으로부터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을 뜨다 : 짐승의 머리와 네 발을 잘라내다.

값이 눅다 : 값이 싸다.

결을 주다 : 속을 터 주다.

굽해맞다 : 사정이 매우 다급하다.

기운꼴이 박히다 : 꽤 센 힘이 있다.

계목을 지르다 : 듣기 싫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다.

계바라 다니다 (오르다) : 함부로 이리 저리 다니다.

귀맛이 나다 (돌다) : 들을 재미가 있다.

나무람을 타다 : 나무람을 당해서 마음에 언짢음을 느끼다.

난탕을 치다 : 난잡스레 행동하다.

남의 달을 집다 : 아이가 날 달에 나지 않고 달을 넘기다.

넋살이 나다 : 몹시 혼이 나다.

넋을 놓다 : 정신없이 멍하게 되다.

넋이 오르다 : 신바람이 나서 흥이 오르다.

노라리를 치다 : 건달을 부리다.

노염이 들다 : 노여운 느낌이 생기다.

노염을 사다 (타다) : 성을 내지 않아도 될 일에 성을 내다.

눅장이 나다 : 완전히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눈표가 나다 : 눈에 잘 뜨이다.

눈꼴이 나다 : 보기가 불쾌하다.

눅출을 놓다 (주다) : 긴장을 풀다. 긴장을 풀어 주다.

내심이 있다 : 속이 깊고 참을성이 많다.

뱃을 내다 : 배웅하다.

네굽을 놓다 : 몹시 급히 뛰다.  
 네굽을 안고 : 아주 빨리  
 더위가 들다 : 여름철 더위로 병이 나다.  
 동안이 뜨다 : 사이가 뜨다.  
 등쌀이 달다 : 몹시 등이 달다.  
 등쌀을 놓다 : 남에게 짓궂게 귀찮게 굴다.  
 대중을 치다 : 어림으로 셈치다.  
 뉘코에 걸리다 :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뉘배를 보다 : 뉘에서 일을 보살피 주다.  
 뉘설레를 놓다 : 서두르며 수선을 피우다.  
 뉘꼬리를 따르다 : 무슨 일에 소극적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뉘끝을 보다 : 일의 진행결과를 보다.  
 마련이 아니다 : 사정이 너무  딱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말깃을 달다 : 남이 말하는 옆에서 덩달아 말하다.  
 말씨를 심다 (뿌리다) : 뉘에 이야기가 퍼지도록 사람에게 말해놓다.  
 망태기를 치다 :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리다.  
 면전을 돌다 : 관심은 있으면서 직접 관계하려 하지 않는다.  
 모태기를 치다 : 피롭고 안타까와 몸을 뉘틀다.  
 목대가 세다 : 고집·주견이 세다.  
 목대를 잡다 : 휘어잡고 거느리다.  
 맥살이 나다 : 기운과 의욕이 떨어지다.  
 바람을 맞다 : 몹시 마음이 들뜨다.  
 발씨가 서투르다 : 길이 익숙하지 않다.  
 불을 걸다 : 제기된 문제에 집중적인 작용을 가하다.

비위를 부리다 (팔다, 쓰다) : 체면도 없이 짓궂게 굴다.

배가 맞다 : 서로 뜻이 맞다.

배짱을 대다 : 배짱을 부리다.

사자밥을 지다 : 언제 죽을지 위험 속에 있다.

산코를 골다 : 헛코를 골다.

선코를 메다 : 남보다 먼저 시작하다.

성수가 나다 : 일이 잘되어 기세가 오르다.

성화를 대다 (먹이다, 바치다) : 자꾸 몹시 귀찮게 굴다.

손을 걸다 : 손찌검을 하다.

자국을 밟다 : 발 자국을 따라 뒤쫓다.

장달음을 치다 : 즐달음을 치다.

장알이 지다 :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히다.

조화가 나다 (들다) : 이상하고 묘하게 되다.

중을 뜨다 : 수단을 써서 낚지시 남의 속을 뜨다.

질탕을 치다 : 질팡거리며 돌아치다.

첫 코를 메다 : 남보다 제일 먼저 시작하다.

축을 잡히다 : 모자라는 약점을 잡히다.

코빵을 맞다 : 거절을 당하다.

큰 코를 때우다 : 크게 봉변을 당하다.

통이 들다 (앉다) : 배추 등이 속이 들다.

헛거미가 잡히다 : 욕심 때문에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다.

호박을 잡다 : 힘들이지 않고 뜻밖에 호사를 만나다.

혼쌀을 먹다 : 되게 혼나다.

흙통에 넣다 (빠뜨리다) : 극도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

지게 되다.

홀으로 보다 : 대수롭지 않게 보다.

해가 설핏하다 : 어두워 오다.

꿈에 네뚜리 : 아주 하찮게 여김

어리손을 치다 : 미리 환심을 사느라고 서두르다.

오구탕을 치다 : 법석을 떠들며 야단을 치다.

우통을 치다 : 실속없이 겉으로만 큰소리를 치다.

### 3. 文法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해방이후 北韓이 걸어온 언어정책의 시기는 철자법의 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흔히 3기로 나누고 있다.

제 1기를 맞춤법시대 ( 1945 ~ 1954 )라 하고 제 2기를 철자법시대 ( 1954 ~ 1966 ), 제 3기를 규범집시대 ( 1966 ~ )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 1기는 주로 해방이후 철자법과 한자어 폐지에 주력한 시기였으며, 제 2기는 사전편찬, 외래어 표기법, 문법문제를 많이 다루던 시기였으며, 64년, 66년의 김일성 교시로부터 말다듬기가 시작된 제 3기는 文化語의 보급 및 文化語 文法을 규범화하는데 역점을 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文法에 관한 집대성은 규범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선어문법 1, 2」가 1960 ~ 1963년에 과학원 언어문학 연구소에서 출간되었다는 것과 1966년 「조선말규범집」에 이어 1972년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에서 간행한 「문학어문법규범」이 전부이다.

특히 「문학어문법규범」은 「문화어」의 民衆普及을 위한 人工的이고

强制的 拘束性을 띤 것으로, 南韓의 一般文法書와는 매우 異質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즉 學術的 文法內容에다 實際 言語驅使面의 規範的 要素가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책이다.

北韓語에서 語形에 영향을 주고 있는 判明되는 文法要素는 接辭나 補助語幹 등의 形態素이다.

그러므로 造語法( word formation )에 있어서 接辭에 의한 派生法과 語結合에 의한 合成法이 南北相互 特異形態를 導出시키고, 補助語幹에 의한 被動法과 使動法에 있어서 다소 相異性을 보이고 있다.

### 가. 派生法·合成法

#### (1) 副詞化接尾辭 「이」「히」

南北韓語 공히 形容詞類가 副詞로 轉成될 때에는 接尾辭 「이」「히」등을 語根에 接合시키는데, 北韓語에서는 이때 語根의 特質과는 關係없이 接辭의 接合이 自由롭다.

다음 語例의 轉成副詞들은 南韓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어색한 감을 주며, 이들은 거의 「-하게」로 活用化하여 쓰이는 것이 一般的이다.

「-히」:

날씬-히 ( 날씬하게 )

낮춤-히 ( 낮춤하게 )

녹진-히 ( 녹진하게 )

녹신-히 ( 녹신하게 )

도툼-히 ( 도툼하게 )

드문-히 ( 드문하게 )

대견-히 ( 대견하게 )

맞춤-히 ( 맞춤하게 )

멍-히 ( 멍하게 )

명랑-히 ( 명랑하게 )

무난-히 ( 무난하게 )

멍멍-히 ( 멍멍하게 )

분분-히 ( 분분하게 )

살랑-히 ( 살랑하게 )

시들-히 (시들하게)

실-히 (실하게)

심장-히 (심장하게)

준엄-히 (준엄하게)

지루-히 (지루하게)

혹심-히 (혹심하게)

억울-히 (억울하게)

음산-히 (음산하게)

「-이」:

무직-이 (무직하게)

방식-이 (방식하게)

부잇-이 (부잇하게)

불긋-이 (불긋하게)

상서로-이 (상서롭게)

정의로-이 (정의롭게)

하찮-이 (하찮게)

어려-이 (어렵게)

아름다-이 (아름답게)

영화로-이 (영화롭게)

옳-이 (옳게)

외따로-이 (외따로)

## (2) 形容詞化 轉成接尾辭

語根이나 語基에 接尾辭가 붙어 形容詞로 轉成될 때는 南北韓 語 공히 「스럽다」「하다」「차다」「롭다」「지다」「바다」 등이 쓰이는데, 이러한 派生法에서 兩方語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의 派生語形은 南韓語에서는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하다」:

낮춤-하다 (낮은 듯하다)

맞춤-하다 (비슷한 정도로 알맞다)

물론-하다 (가리어 말할 것 없다)

맥-하다 (술이나 약기운이 날아가 싱겁다)

별-하다 (이상스럽게 다르다)

좁-하다

직심-하다 (마음이 참되고 곧다)

여간-하다 (이만저만하다)

유감-하다 (마음에 차지 않아 섭섭하고 한스럽다)

응당-하다 (마땅하다)

「-스럽다」:

망측-스럽다

명량-스럽다

무난-스럽다

무안-스럽다

미타-스럽다

소견-스럽다 (제법 소견이 너르다)

잘망-스럽다

푸접-스럽다

역-스럽다 (역접다)

우연-스럽다

「-롭다」:

고드-롭다

저주-롭다

초소-롭다

「-보다」:

나무라-보다 (나무랄게 생각하여 마음에 언짢다)

「-차다」:

기승-차다

자랑-차다 (몹시 자랑스럽다)

정-차다

영광-차다

희망-차다

우람-차다

「-지다」:

맑-지다 (맑은 티가 있다)

주렁-지다

차레-지다



「-긋다」:

잔망-긋다

잘망-긋다

「-맞다」:

급해-맞다

바빠-맞다

증상-맞다

「-적다」:

의아-적다

### (3) 動詞化 轉成接尾辭

語根이나 語基에 接尾辭가 붙어 動詞化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의 派生語들은 南韓語에서는 모두가 어색한 語形들이다.

「-하다」:

모두-하다 (모두 합치다)

토대-하다 (기초나 근거로 하다)

허물-하다 (허물로 여기다)

설-하다 (설사하다)

「-되다」:

몽상-되다

애-되다 (어린티가 있어 보이다)

「-거리다」:

자랑-거리다 (자꾸 자랑하다)

「-치다」:

지동-치다

「-나다」:

아파-나다.

(4) 派生語의 量産·雜居

北韓語는 前項의 接尾辭 發達과 함께 接頭辭의 造語生産的 機能도 過大히 強化시키고 있다. 이는 接辭의 派生性 즉 語彙生産性을 最大로 活用한 經濟性을 의미하기는 하나, 이로 말미암은 兩方語의 語彙的 異質性도 莫과할 수 없는 정도이다.

다음 語例에서 接頭辭가 形成하고 있는 派生語는 南韓語에서는 使用하지 않는 生소한 것들이다.

「내-」:

-돌다, -돌치다, -딩굴리다, -밟다, -버티다, -벌리다,  
-떡우다, -뿔다, -질리다, -짚다, -흔들다

「드-」:

-놀다, -바쁘다, -소문나다, -춧다, -설레이다

「나가-」

-너부러지다, -곤드라지다, -넘어지다, -눅다, -번지다,  
-빠드러지다, -쓰러지다

「다가-」

-들다, -세우다, -쓰다

「내리-」

-다지다, -달다, -달리다, -덜다, -덜이다, -드리우다,  
-디디다, -딩굴다, -붓다, -비치다, -숙이다, -심다,  
-쉬다, -조기다, -죽치다, -짚다, -호르다, -꼰지다,  
-꽃다, -꽃히다, -깨다, -쓰다, -쏘다, -엮다,  
-읽다, -외다, -외우다

「 지르- 」

-갈다, -누르다, -디디다, -밟다, -보다, -숙이다,  
-끼다

「 짓- 」:

-구기다, -달리다, -두들기다, -대기다, -마스다, -맞다,  
-모다, -몽개다, -부르다, -숙이다, -조기다, -태우다,  
-패다, -깔리다, -떠들다, -뚜드리다, -쑤시다

위의 派生語들은 用言에 接頭辭가 붙은 例들인데 주로 의미를 강하게 하는데 . 사용하는 強勢接頭辭로서, 이들의 발달은 北韓語의 억양과도 같이 強硬化되어가는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 名詞類에 붙는 接頭辭에 있어서도 그 派生形이 南韓語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語例들이 많이 눈에 띈다.

「 닷- 」:

-달, -종, -장

「 단- 」:

-마디, -모금, -무릎에, -매

「 마- 」:

-가을, -바람, -해, -쪽, -여름

「 무리- 」:

-매, -매질, -주검, -떼

「 미루- 」:

-등, -매, -벌

「 결- 」

-굴, -다리, -도랑, -불

「갓-」:

-병아리, -뿌리, -밭이

「빈-」:

-소리꾼, -소문, -이름, -인사

이밖에 接尾辭類에도 造語的 生産機能을 最大로 부여하여 生소한 新 派生語를 濫造해 놓았다.

「-질」:

말공부-, 말다툼-, 말대꾸-, 개-, 무리매-, 닭음-,

더듬-, 가루-

「-군」:

농민-, 배-, 빈소리-, 모-

#### (5) 合成語의 亂舞

北韓語에서 두 개의 實辭形態素가 복합되어 쓰이는 合成語도 派生語와 더불어 散亂한 形態들로 擴張되어 있다.

「가루」:

-담배, -먹이, -모이, -비료, -쇠들, -즙, -질,

-채, -탄, -씨, -잉크

「사상」:

-사업, -성, -수양, -동원, -개조, -전선, -적요새,

-투쟁, -혁명, -의식

「강냉이」:

-겨, -국수, -기름, -눈, -다락, -속, -질, -튀기,

-쌀, -오사리

위의 合成語들은 北韓社會의 特産物이나 政治社會體制와 관련있는 語

彙이나 南韓에서는 쓰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히 「달갈」은 語根을 밝혀 「닭알」이라 表記하고 있고, 「닭의란」 「닭의발」 「닭의살」등의 特異한 語形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北韓語의 合成語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이스”을 插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사이스”은 形態上, 意味上, 音韻上으로 매우 重要한 機能을 가진 形態素로써, 이의 폐지는 더욱 兩語의 語形的 異質化를 深化시키고 있다.

해빛 (햇빛)	기발 (깃발)	바줄 (밧줄)
뒤짐 (뒷짐)	고기배 (고깃배)	비물 (빗물)
비방울 (빗방울)	비자루 (빗자루)	배노래 (뱃노래)
시내가 (시냇가)	새별 (셋별)	세방 (셋방)
저가락 (젓가락)	주추돌 (주춧돌)	주대 (줏대)
초불 (촛불)	표말 (뿔말)	꽤불 (햇불)
이몸 (잇몸)	코등 (콧등)	

이밖에도 複合용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特異語形들이 있고,

옥불다 (안으로 옥아 불다)

얼눅다 (얼다가 눅다)

업고들다 (상관없는 남을 끌어 들이다)

타끓다 (타고 끓다)

헐잡다 (헐하게 어림잡다)

트고지내다 (스스럼없이 가까이 지내다)

겹쌓다 (겹으로 쌓다)

먹고담다

괴짚다

副詞語形도 特異形態들이 많이 散見된다.

듣다처음,                      말말끝에,                      말바로,  
 면바로,                      자기절로,                      내절로,  
 단매에,                      아디라없이

#### 나. 使動法·被動法

兩方語의 文法體系에서 一般用言이 使動詞 또는 被動詞로 轉成 될 때는 「이」「히」「리」「기」 등의 補助語幹을 挿入한다.

南韓語에서 이들 補助語幹은 造語的 機能으로 보아 다소 不具的인 形態素의 性格을 띠고 있어 모든 用言에 挿入·適用될 수 없는데 反해, 北韓語에서는 보다 多樣·廣範圍하게 挿入될 수 있는 造語力을 가지고 있다. 이는 南韓語에서 반드시 補助語幹을 挿入하는 方法 외에도 다른 補助的 用言을 取하여 쓰는 使動·被動法이 더 자연스런 傾向을 띠기 때문이다.

다음에 提示하는 北韓語의 使動詞, 被動詞들은 南韓語에서 쓰이지 않는 語形으로서 주로 南韓語에서는 「-게 하다」와 「-어 지다」의 形態로 쓰는 것이 一般的이다.

#### < 使動詞 >

노엽히다 (노엽게 하다)	말이다 (말게 하다)
묵이다 (묵게 하다)	묻히다 (묻게 하다)
불구다 (붓게 하다)	비뚫이다 (비뚫게 하다)
빛내이다 (빛나게 하다)	베우다 (베게 하다)
뵈우다 (보게 하다, cf. 보이다)	
설리다 (설게 하다)	시달리우다 (시달리게 하다)
시들리다 (시들게 하다)	쉬우다 (쉬게 하다)

자래우다 (자라게 하다)

깊히다 (깊게 하다)

쥐우다 (쥐게 하다)

얇히다 (얇게 하다)

<被動詞>

내놓이다 (내놓아 지다)

뭉개이다 (뭉개어 지다)

분질리다 (분질어 지다)

보이다 (보아 지다, cf. 보이다)

시들키다 (시들어 지다)

퍼이다 (퍼어 지다)

패이다 (파 지다)

활이다 (활아 지다)

헐벗기다 (헐벗어 지다)

엮이다 (엮어 지다)

잇히다 (잇어 지다)

또한 北韓語의 被動詞 語形 가운데는 「(이, 히, 리, 기)우다」형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特異하다. 南韓語에서는 이를 方言的 現象으로 補助語幹 두 개가 잘못 疊用된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反해 北韓語에서는 文化語 사전에도 이들 語形을 표준어시하여 登載하고 있다.

깎이우다 (깎이다)

끌리우다 (끌리다)

따돌리우다 (따돌리다)

엮히우다 (엮히다)

읽히우다 (읽히다)

튀기우다 (튀기다)

팔리우다 (팔리다)

물리우다 (물리다)

깔리우다 (깔리다)

잡히우다 (잡히다)

#### 4. 音韻的 差異로 異質化된 語彙

北韓語의 音聲學的·音韻論的 實態는 이미 洪妍淑(1977), 李炫馥(1977)에 의해 記述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項目만 提示할 뿐 詳論을 피하기로 한다.

北韓語에서 音韻的 諸現象이 語彙의 形態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은 대체로 母音變異, 「ㅣ」母音順行同化, 前舌母音化, 母音交替, 濃音化, 音韻倒置, 絶音現象, 頭子音 등이다.

##### 가. 母音變異 (umlaut)

先行하는 後舌母音이 後行하는 「ㅣ」母音의 逆同化作用을 받아 變音되는 것으로, 南韓에서는 주로 方言的 現象으로 많이 나타난다.

北韓語에서는 同化變異된 것으로서 語形을 삼는 例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ㅌ+ㅣ→ㅕ+ㅣ, ㄱ+ㅣ→ㅑ+ㅣ의 分포가 많고, ㄴ+ㅣ→ㄹ+ㅣ, ㄷ+ㅣ→ㄱ+ㅣ는 잘 보이지 않는다.

「ㅌ>ㅕ」:

담쟁이 (담장이)

배추꼬랭이 (꼬랑이)

소금쟁이 (소금장이)

곰팡이 (곰팡이)

아지랭이 (아지랑이)

쟁내비 (잔나비)

실오래기 (실오라기)

지푸래기 (지푸라기)

「ㄱ>ㅑ」:

말쌩꾸레기 (말쌩꾸러기)

불구덩이 (불구덩이)

엉덩이 (엉덩이)

무더기 (무더기)

꾸레미 (꾸러미)

웅덩이 (웅덩이)



#### 나. 「ㅣ」母音順行同化

先行하는 「ㅣ」母音의 영향을 後行하는 母音이 받게 됨으로  
[j] 반자음을 介 入시키는 現象으로 語彙로는 주로 < > 녀가 많다.

가슴해염 (가슴해엄)

드디여 (드디어)

비여지다 (비어지다)

되였다 (되었다)

해여지다 (해어지다)

떠엄떠엄 (떠엄떠엄)

#### 다. 前舌母音化

齒音 (ㅅ, ㅆ, ㅈ)에 연결된 「ㅡ」나 「ㅍ」가 前舌母音인  
「ㅣ」로 바뀌는 現象이다.

수집다 (수줍다)

부시시 (부스스)

비실거리다 (비슬거리다)

부시시 (우수수)

부시다 (부수다)

#### 라. 母音交替 (ablaut)

對立母音 (ㅏ / ㅑ, ㅓ / ㅕ)끼리 서로 交替되는 現象으로 이도 方  
言的 影響과 母音調和의 붕괴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거마리 (거머리)

거자리 (거저리)

갈구리 (갈고리)

차집다 (차잡다)

도드라기 (두드러기)

주막 (주먹)

## 마. 子音의 濃音化

音聲強化現象의 하나로 表音式 綴字法을 취하는 한 形態이다.

논둑(논둑)

원쑤(원쑤)

복쑤(복쑤)

## 바. 頭子音 再生

南韓語에서 頭子音法則은 철저히 지켜져, 음절 첫소리로 「ㄹ」이나 「ㄴ」을 회피하고 있다. 즉 「라, 러, 로, 루, 르」가 頭音에서 「나, 너, 노, 누, 느」로 바뀌고, 「랴, 려, 료, 류, 리」 또는 「냐, 녀, 뇨, 뉴, 니」가 頭音에서 「야, 여, 요, 유, 이」로 바뀌는 법칙인데, 北韓語에서는 意圖적으로 維持·再生시켜 쓰고 있다.

력사(역사: 歷史)

로동(노동: 勞動)

리정표(이정표: 里程表)

료금(요금: 料金)

랑만(낭만: 浪漫)

## 사. 絶音

두 개의 名詞語가 복합할 때, 앞音節에 받침이 없고 冠形格의 의미를 가지며 뒤音節의 첫소리가 硬音으로 발음될 때는 “사이스”을

挿入하여 絶音効果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表記法조차도 北韓語에서는 당초 [ ' ]로 표시하다가 이젠 완전히 폐지했다( 語例는 前出 參照 )

#### 아. 音節倒置

音節倒置現象은 現代 南韓語에서는 주로 學生語나 特殊集團의 隱語 또는 卑語에서 많이 發生하고 있는데 ( 예 : 총알→알총, 지갑→갑지, 극장→장극 ), 北韓語에서도 이와같은 語例들이 文化語에서도 散見된다.

돌망 ( 망돌 : 멧돌 )

#### 자. 音節縮約

北韓語에서 音節이 줄어들어 쓰이는 語彙는 매우 많이 나타난다.

그닥 ( 그다지 )

떡 ( 미역 )

모다 ( 모으다 )

میم ( 미움 )

웨 ( 무에 )

뻬 ( 배알 )

주물다 ( 주므르다 )

홈탁 ( 홈타기 )

꼬트럭 ( 꼬트러기 )

원 ( 워낙 )

한껍에 ( 한꺼번에 )

이상의 諸音韻現象에 따른 語形의 表記形態에서 나타나는 北韓語의 특징은 表音式 表記法을 採用함으로써 발음나는 대로 충실히 적는 경향이 있고, 同化作用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는 同化된 발음을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表音式 表記法을 重視하면서도 다음 예처럼 用言語尾의 「ㄹ」下 硬音表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사이스”의 폐지 등은 이러한 原則에 相衝되는 現象이다.

－ㄹ가 (－ㄹ까)

－ㄹ수록 (－ㄹ쑤록)

－ㄹ지라도 (－ㄹ찌라도)

－ㄹ고 (－ㄹ꼬)

－ㄹ진대 (－ㄹ찐대)

게다가 音韻의 同化現象에서 同化된 音価를 표준시하여 表記하는 것은 일종 勞力經濟의 原則을 重視하려는 의도인데, 頭子音「ㄹ」을 되살려 쓰는 것은 이에 逆行되는 現象이다.

### Ⅲ. 語彙意味의 相異性 對比

意味의 變化는 概念 (sense) 과 名稱 (name) 사이의 關係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同一名稱의 語彙가 지닌 意味域 (meaning scope) 이 擴張, 또는 縮小되는 현상이 있고, 意味價值 (meaning value) 가 上昇 또는 下落하는 현상도 있다. 또한 一般的인 意味가 特殊化되는 경우도 있으며, 역으로 特殊한 意味가 一般化되는 變化도 있다. 이 밖에도 因果關係나 隱喩에 의한 轉義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語彙는 本有의 主意 (primary meaning) 를 잃어 버리고 副意 (secondary meaning) 가 浮上되는 變化도 보여 준다.

실제로, 言語의 內容이 되는 意味는 形式이 되는 形態보다는 짧은 기간에 쉽게 變貌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語形이나 綴字 등의 問題는 政策的인 拘束力의 發動으로 修正 또는 改定이 可能하지만 意味의 問題는 人間의 心理的 諸要素들과 結付되어 있기 때문에 政策에 의한 交替가 容易하지 않다.

그러므로, 南北韓語의 言語隔差에 있어서 語形의 異質性보다는 意味의 相異性 言語統一에 대하여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言語의 意味變化는 ① 心理的 要因 ② 社会的 要因 ③ 歷史的 要因 ④ 言語自體의 要因 등에 의해 誘發되는데, 南北言語는 歷史적으로 分斷 35 年の 그리긴 기간이 못되니 變化의 要因으로 無視될 수 있겠고, 言語自體도 同一國語가 對象이 되니만큼 直接的인 要因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南北言語의 意味變化를 誘導한 것은 社会的 要因과 心理的 要因이 主要因이 될 것이다.

즉, 北韓集團의 政治的 理念, 思想的 指向性, 社会的 構造 등과 이에 따

은 制度的인 面貌는 人民들의 思考와 心理를 改造시키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言語의 意味도 그에 맞는 變化를 하게 된 것이다.

이제 同一語形을 취하는 北韓의 語彙가 韓國과는 意味의 範疇를 달리하는 實例를 들고, 그 變化樣相을 考察해 가겠다.

### 1. 縮小(narrowing), 特殊化(specialization)

意味의 縮小, 特殊化는 당초 一般的인 意味의 넓은 意味域을 점유하고 있던 語彙의 意味가 좁아지고 特殊한 것에 限定되는 類型의 意味變化를 말하며, 北韓語의 意味變化 가운데 中心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政策的이고 人爲的인 制約에 의해 어떠한 語彙에 관련된 一般的인 意味를 어느 特定人이나 特定事實, 特定集團이나 特定場所에 限定 結付시킴으로 特殊화된 것이다.

특히 刮目할 사실은 北韓 語彙意味의 特殊化는 그 對象이 매우 分明하여, 김일성의 偶像화에 따른 人工的인 特殊化, 革命·建設事業에 관련된 特殊化, 政治·思想 宣傳의 方便化에 따른 特殊化가 主潮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言語가 意味面에서도 순수가치를 상실하고 政治道具로서 社會를 통제하는 方便으로 사용되고 있는 轉落된 存在임을 인식할 수 있다.

#### 가. 김일성 偶像화에 따른 特殊化

語彙 中에서도 崇高하고 英雄的이며 偉대한 말을 選擇하여 김일성 個人의 專有物로 指定하는 形態의 特殊化이다. 즉, 누구나 가질 수

있는 崇高한 屬性, 누구나 할 수 있는 英雄的 活動,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높은 地位를 김일성의 独占物로 限定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個人偶像化, 神格化에 直結되는 것이다.

다음에 例示하는 語彙의 意味는 누구에게나 該當될 수 있는 一般性이 배제되고, 으레히 김일성을 指稱하는 것으로 縮小된 것이다. 참고로 一般的 意味를 提示한 韓國語의 辭典意味로 對比시켜 보았다.

	< 韓 國 >	< 北 韓 >
교 시	가르쳐 보임	<u>김일성동지</u> 가 가르쳐 주신 혁명·건설의 지침이 되는 말씀
가르치심	가르침의 존대	위대하신 수령 <u>김일성동지</u> 가 가르쳐 주신 혁명·건설의 지침이 되는 말씀
경애하는	공경·사랑하는	존경과 친근한 마음으로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로 작	힘들여 만든 작품	<u>김일성동지</u> 가 집필한 혁명·건설에서 지침이 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불후의 저서
문 헌	문물제도의 기록	<u>김일성동지</u> 의 노작
사 령 관	사령부의 장	항일 투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 혁명 무력을 키워 승리의 한 길로 영도하신 <u>김일성동지</u>

	< 韓 国 >	< 北 韓 >
사 적 물	역사적으로 남을 사건물	<u>김일성동지</u> 의 혁명적 과정, 활동과 관련된 우리 인민의 역사에 길이 전해질 귀중한 대상물
사 적 비	역사적으로 남을 일을 쓴 기념비	사적지에서 <u>김일성동지</u> 가 투쟁한 혁명활동을 적은 기념비
사 적 지	역사적으로 기념될 장소	<u>김일성동지</u> 의 혁명적 과정, 활동과 관련된 역사에 길이 전해질 유서 깊은 곳
송 가	찬양하는 노래	<u>김일성동지</u> 의 빛나는 업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을 절절한 흠모의 정으로 칭송하는 노래
송 시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시	<u>김일성수령</u> 의 빛나는 업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을 읊는 서정시가의 한 형태
장 군	장 성	<u>김일성동지</u> 를 존경의 마음으로 전설적 영웅으로 우러러 받들어 부르는 명칭
주 석	주장되는 자리, 주인의 자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
수 령	한 당파나 무리의 우두머리	노동계급의 당파 인민대중의 최고 영도자
수 상	내각의 우두머리	이전시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수반



	< 韓 国 >	< 北 韓 >
지도자	가리키어 이끄는 사람	당과 국가사업을 지도하여 혁명·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분
지 원		위대하신 수령 <u>김일성동지</u> 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님의 높으신 뜻
초상기	초상을 그린 깃발	<u>김일성동지</u> 의 초상을 정중하게 모신 깃발
초상화	사람의 용모, 자태를 그린 그림	<u>김일성동지</u> 의 초상을 정중하게 나타낸 그림이나 사진
현지교시	현장에서 가르쳐 보임	<u>김일성동지</u> 께서 현지지도 하시면서 주신 교시
아버이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u>김일성동지</u> 께서 인민에게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뜨거운 사랑
아버이손길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손길	<u>김일성동지</u> 께서 인민에게 베푸시는 자애로운 손길
아버이정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정	<u>김일성동지</u> 께서 인민에게 베푸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온정

나. 革命·建設事業에 관련된 特殊化

語彙名稱이 指示하는 一般的인 意味對象을 革命·建設事業에 制限·  
結付시킴으로 意味域의 外延이 좁아진 特殊化가 되었다.

	< 韓 国 >	< 北 韓 >
간 부	단체 수뇌부의 임원	혁명·건설에서 군중을 교양,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하는 일꾼
도 피	도망하여 몸을 피함	혁명투쟁의 마당을 피하여 도망하 는 것
독 창 성	혼자힘으로 처음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내는 특성	혁명·건설에서 새로운 문제를 정 확히 밝혀 내거나 자체의 힘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특성
동 무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노동계급의 <u>혁명위업</u> 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
동 맹	어떤 목적을 위해 상호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 을 맹세하는 약속, 언약	노동계급이 <u>혁명투쟁</u> 에서 그 혁명 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제급이나 계층들과 손을 잡는 것
동 지	서로 뜻이 같은 사람	노동계급이 <u>혁명위업</u> 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대오에서 같은 뜻을 가 지고 싸우는 혁명가
대 사 변	나라의 중대한 큰 변사	<u>혁명발전</u> 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 오게 하는 큰 사변

	< 韓 国 >	< 北 韓 >
열사	절개가 굳은 사람	<u>혁명열사</u>
영도	거느려 이끔	<u>혁명·건설</u> 에서 어떤 계급·조직·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통솔·지도하여 투쟁으로 조직·동원하여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것
맹목적	따지거나 분별없이 무턱대고 하는것	<u>혁명적 원칙</u> 이나 주전없이 덮어 놓고 하는 것
반동	역사의 조류에 역행, 진보적 운동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운동	<u>혁명적 역량</u> , 진보적 세력에 항거,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노선·정책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해독행위를 하는 반혁명적인 운동
변절자	절개가 변한 사람	<u>혁명적지조</u> 를 저버리고 조국·인민을 배반하여 반혁명이나 반동으로 넘어간 자
보검	보배로운 칼	<u>혁명·건설</u> 에 이용되는 위력적이고 귀중한 수단이나 무기
붉은편지		<u>혁명·건설</u> 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당원에게 호소하는 편지
수양	도를 닦고, 덕을 기르는 일	당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u>혁명노동계급화</u> 의 수령님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자질을 높이며, <u>혁명적 사업방법</u> 과 인민적

	< 韓 國 >	< 北 韓 >
승 리	겨루어 이김	사업 작풍을 체득하여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사상단결에 힘씀
시 위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임	혁명투쟁·건설사업에서 이기는 것
신 문		근로자들의 사회·정치적 위력과 혁명적 기세를 보이기 위한 대중운동, 행사
자 각	스스로 깨달음	혁명사상·당정책으로 인민을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
자녀교양	자녀들에 대한 교양	객관적 처지, 역사적 사명, 계급적 임무, 맡겨진 과업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깨달아 아는 것
자력갱생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감	자녀들을 당유일사상으로 무장,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u>건설의 후</u> 비대로 키우기 위한 교양
자 주 성	남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성질	혁명·건설의 모든 문제를 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
자주통일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	자연과 사회의 혁명·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책임을 다하는 입장과 태도, 특성
		수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적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함.

	< 韓 国 >	< 北 韓 >
자 질	타고난 성품과 바탕	가지고 있는 정치적·실무적 능력 수준
적	서로 대적되는 편사람, 원수	혁명을 반대하고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계급적 원수,
적대계급	적으로 맞서있는 계급, 사람, 사상, 세력	혁명과 노동계급의 이익에 적대되는 관계에 있는 계급, 사람, 사상, 세력
- 분자		
- 사상		
- 세력		
전 략	전쟁의 방략	<u>혁명의</u>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침
전 술	전쟁의 방법	<u>혁명단계에서</u> 전략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강령
전 투	싸움, 교전/	<u>혁명과업</u> 수행을 위해 혁명적으로 벌이는 투쟁
종 파	지파에 대한 종파의 제통	당과 혁명의 이익보다 개인야욕을 채우기 위해 분열·책동하는 반당적 집단, 분자
주 력 군	주되는 병력	투쟁이나 혁명에 참가하는 주되는 영향
대 고 조	가장 한창인 고비	근로자들이 당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의 전선에서 비상이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서 끊임없는 양양을

	< 韓 国 >	< 北 韓 >
기 수	기를 들고 앞장서 가는 사람	일으킴. 혁명투쟁·건설사업에서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
기회주의	정세에 따라 기회를 관망하며 편의적으로 행동하는 주의	노동운동 대열 안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u>혁명적 진수</u> 를 거세·왜곡하여 혁명에 화를 주는 반동·반혁명적 사상조류
과도기	묵은것에서 벗어나 새것을 이루는 동안	자본주의 전복하고 노동계급이 정권을 전부터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의 시기
모략	지모의 방략	침략과 <u>반혁명적</u> 해독행위의 부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꾸며내는 음모책동
각성	자기 잘못을 깨달음	노동자·농민등이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사상·정치적 의식이 높아지는 것.
불순분자	순수하지 못한 사람	정치사상적으로 불건전하여 <u>혁명이</u> <u>익을</u> <u>쪼먹는</u> 자
전람회	견식을 높이기 위해 진열하는 것	선전교양을 위해 진렬하는 것
정실관계	사사로움 인정에 얽힌 관계	당적원칙을 떠난 사사로움 정이나 처분으로 맺어진 관계

	< 韓 国 >	< 北 韓 >
정 치 범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정치적 동기로 지 은 죄	반동통치제도에 싸운 <u>혁명가</u> , 애국 적 인사들에게 씌운 죄명, 사람
지 덕 체	지육·덕육·체육	당 유일사상으로 무장, 사회·공산주 의 <u>건설</u> 에 필요한 지식, 고상한 도 덕품성을 소유하여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튼튼한 체력을 가지는 것
창 발 력	창조·발전하는 힘	<u>혁명사업</u> 수행에 있어서 당정책 관철사업을 전진시키고, 새로운 발 전을 위해 사고하고 싸우는 발기 나 의견을 내어 적극적으로 일하 는 능력
창 조 력	처음으로 만드는 힘	본따거나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u>혁명발전</u> 의 현실적 요구와 구체적 특성에 맞게 새로 창조·발전시키 는 힘
처 단 천 명	처치하여 결단함 드러내어 밝힘	<u>반혁명분자들</u> 을 없애 버리는 것 노선·방침등을 과학적으로 깊게 뚜렷이 밝힘
초 병	파수보는 군사	<u>혁명의 전취물</u> 을 보위하기 위해 초소를 지키는 병사

	< 韓 国 >	< 北 韓 >
추 동 력	밀고 나가는 힘	혁명투쟁 · 사회발전에 적극 고무하 고 밀고 나가는 힘
타협주의	두편이 서로 좋도록 협 의하는 주의	혁명이익과 노동계급의 입장을 떠 나 적의 편과 타협하는 기회주의
탐위분자	지위를 탐하는 분자	혁명에는 관심이 없고, 일신의 안 일과 명예를 추구, 높은 지위를 탐하는 반혁명적 사상을 가진 자
투 쟁	싸워서 다름	사회역사를 개조발전시키기 위해 남 고 반동적인 것을 반대하여 싸우 는 적극적인 활동
학 습	배워서 익힘	정치 · 문화 · 기술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
향 도	길을 이끌어 감	혁명투쟁에서 앞길을 밝혀 주고 승 리의 한길로 이끌어 감
혁 신 자	묵은 조직을 바꿔 새롭 게 하는 사람	수령의 교시와 당노선과 정책관철 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 을 다해 사업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
핵 심	사물의 중심이 되는 가 장 중요한 부분	조직체나 집단에서 앞장서서 이끌 고 가는 자각적이며 적극적 성원



	< 韓 国 >	< 北 韓 >
희생성	희생적인 성품	당과 수령, 혁명위업을 위해 목숨과 자기 모든것을 바치는 고결한 혁명적 품성
안일성	편안하고 한가로운 성품	<u>혁명적으로</u> 일하고 생활하지 않으며 긴장없이 마음을 늦추고 한가히 행동하는 태도
영웅	재주가 비범하고 용맹이 탁월하여 대업을 성취한 사람	<u>혁명투쟁</u> ·건설사업에서 뛰어난 공훈을 세운 공민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영웅칭호를 받는 사람
우경	보수파, 국수주의, "과시즘" 등의 입장으로 기움	<u>혁명사업</u> 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부르조아지"에게 이익을 주는 경향, 행동
유가족	주인이 죽고 뒤에 남은 가족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u>혁명열사</u> 나 애국열사들의 가족
이색분자	색다른 사람	당의 사상정책을 반대하는 자로서 당과 <u>혁명대열</u> 안에 끼어든 불순분자
일군	값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u>혁명</u> ·건설을 위하여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
일당백	한사람이 백사람을 당함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강

	< 韓 國 >	< 北 韓 >
일편단심	한조각 붉은 마음, 진심	철의 혁명대오, 그러한 혁명적 전통적인 기상 오직 혁명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몸바치는 붉은 마음

#### 다. 政治宣傳 및 資本主義의 비난을 위한 特殊化

北傀集團이 항시 비난·선전하는 이른바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 그리고 반동통치계급들의 착취와 압박」의 내용을 어느 語彙에 局限·結付시킴으로서 誘導되는 의미의 特殊化 形態이다.

이러한 語彙들은 그들의 비난대상이 되니 만큼 資本主義(「낡은사회」, 즉 封建主義도 이에 포함됨) 體制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政治理念이나 社會制度의 特徵에 대하여 格下意味로 制限하는 性格을 띠고 있다.

	< 韓 國 >	< 北 韓 >
간첩	적의 영역속에 들어가 비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자	제국주의자 압잡이들에게 고용되어 파괴·암해 행동하는 혁명의 원수
감옥	「형무소」의 전이름	착취·압박을 반대하는 혁명가, 인민들을 범죄의 누명으로 가두

	< 韓 國 >	< 北 韓 >
고 용	값을 주고 사람을 부림	고 구금하는 곳
기만책동	속임수로 하는 정치적 책략, 행동	<u>제국주의자</u> , 반동통치계급이 앞잡 이로 매수하여 예속·부리는 것
괴 퇴	꼭둑각시, 앞잡이, 허수 아비	<u>제국주의자와 반동통치계급이 인</u> 민들을 속여 넘기기 위해 벌리는 책동
괴 수	못된 짓을하는 무리두 목	미제국주의 반동지배계급에 예속 되어 식민지통치의 앞잡이 노릇 을 하는 민족반역자, 정치적 집 단
약 탈 자	폭력을 써서 빼앗아 가 는 사람	<u>제국주의자</u> , 부정적인 무리의 우 두머리
매 국	나라를 팔아먹음	침략으로 인민의 재부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u>제국주의 침략자들</u> 과 착취계급
불 한 당	떼를 지어 다니는 강도	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나라 를 팔아 먹음
전초기지	적군과 가장 가까운 곳 에 대치한 군사기지	"파쇼" 악당이나 군사강패
		<u>제국주의자들이</u> 타국 침략을 목 적으로 식민지에 꾸민 최전방초 소 군사기지

	< 韓 國 >	< 北 韓 >
서명운동	어떤 주장, 의견에 관해 찬성을 서명하는 운동	<u>제국주의 침략전쟁</u> 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옹호하고, 민족주의, 민족적 권리를 요구하는 호소문, 요청서 등을 지지, 서명방법으로 벌이는 사회운동
살인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	<u>제국주의 침략자</u> , 그 앞잡이들이 비법적으로 쓰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무기
상 전	주인	<u>제국주의 앞잡이</u> 나 <u>피퇴에</u> 대해 주인노릇을 하는 제국주의자들
죄 수	옥에 갇힌 죄인	<u>반동통치배</u> 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참 살	참혹하게 죽이는 것	<u>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u> 이나 <u>반동통치배</u> 들이 죄없는 인민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것.
참 흑 상	참혹한 상태	<u>침략차</u> 들이나 <u>반동통치</u> 자들에 의해서 빚어진 참혹한 형상이나 상태
창 쥘	병이나 세력이 자꾸 퍼져서 견잡을 수 없이 되는것	낡은 사회 <u>반동통치</u> 자들의 조작으로 부정적인 세력이 맹렬히 퍼지는 것.

	< 韓 国 >	< 北 韓 >
천막집	천막으로 만든 집	<u>반동통치자들의</u> 착취·약탈로 헐 벗은 인민들이 쓰고 사는 천조 각 비바람을 가리는 살림집
춘궁기	봄철 농민이 살기 어 려운 때	가혹한 착취·약탈로 햇곡식이 나 기전 봄에 집집마다 식량이 떨 어져 굶주림을 겪는 때
치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u>착취계급들이</u> 더욱 배를 불리기 위해 인민들을 착취, 재산을 늘 리는 것
체포	죄인을 쫓아가서 잡음	<u>반동통치자들이</u> 저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가, 애국인민들을 죄 를 들썩어 마구 붙잡음
탄압	피지배계급에 대해 압 박적으로 방해·간섭함	<u>제국주의 침략자들과</u> 반동통치계 급이 혁명력량과 진보세력의 인 민을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박해 를 가하는 것
폭동	도당을 짜서 불온한 행동을 함	<u>착취계급의</u> 국가정권을 반대하여 일으키는 군중적 폭력행동
풍자	무엇에 빗대어 재치있 게 경계하거나 비판함	<u>미제국주의와</u> 계급적 원수들의 반 동적 본질과 죄행을 폭로·규탄 하는데 이용하는 비웃음을 통한 비판

	< 韓 國 >	< 北 韓 >
학 살	참혹하게 마구 죽임	<u>침략자나 반동무리들이</u> 인민들 을 참혹한 방법으로 마구 죽임
학 정	포악한 정치	<u>제국주의자 반동통치자들이</u> 인민 을 난폭하게 탄압·약탈하는 포 악한 정치
회 유	어루만져 잘 달랠	<u>반동 통치배들이</u> 인민의 반항이나 혁명적 진출에 대하여 이를 탄 압하기 위해 거짓과 꾀임으로 구슬리는 것
압 박	내리 누름	<u>제국주의 반동지배계급이</u> 착취계 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인민 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그 들을 정치적으로 억누름
앞 잡 이	남의 시킴을 받고 끄 나붙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	<u>외래제국주의와</u> 반동들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 자
어용 학자	집권자의 정책을 정당 화 시켜 곡학 아세하는 학자	<u>반동적 통치계급과</u> 그 정부의 앞 잡이 노릇을 하는 학자
억 압	힘으로 억누름	<u>외래침략자 반동통치계급이</u> 인민 들에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기위

	< 韓 國 >	< 北 韓 >
우 민 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해 정치적으로 억누르고 탄압하는 것 제국주의자, 반동통치계급이 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억압과 착취를 목적으로 인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정치사상적,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게 하는 것
우호동맹	국가간의 우의를 위한 동맹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 나라사이에 호상원조 및 협조를 위해 맺는 친선적인 동맹
음 모	일을 비밀히 꾸밈	<u>반혁명분자나 원수들이 몰래 흉악한 일을 꾀하는 것</u>

## 2. 擴大(widening), 一般化(generalization)

前項과는 相反的으로, 본래 좁은 意味域을 지니고 特殊한 것에 限定되어 쓰이던 語彙가 그 領域이 넓어지고 一般的인 通用性, 普遍性을 띠게 되는 變化를 말한다.

北韓語 中에는 政治的 道具로서 人爲的으로 意味를 特殊化·縮小시키는 語彙는 많은 反面, 擴大·一般化된 것은 극소수이다. 이는 北韓의 言語社會가 閉鎖的이며 制限的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好

例가 된다.

一般的으로, 通時·歷史的인 言語의 순조로운 發達은 그 意味面에 있어서도 좁은 것에서부터 넓은 것으로, 閉鎖的인 것에서부터 開放的인 것으로 進化하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인데, 北韓言語의 이와같은 상황은 言語의 자연성을 人爲的 政策的으로 拘束하는 逆流를 助長하는 結果로 확신된다.

극소수의 一般化的 例는 政治·革命과는 무관한 尙古의 日常語에 不過하다.

마누라 : ① 아내

② 나이가 지긋한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 : ① 형제 중의 순위

② 나이가 남보다 많은 것, 그 사람.

### 3. 提喻 (synecdoche)

意味變化에 있어서 提喻란 서로 範圍가 다른 두 말을 뒤바꾸어 쓰는 것으로서 앞에서 提示한 意味의 縮小, 擴大와도 關係를 맺고 있다.

範圍가 다른 두 말이란 <類와 種>, <複數와 單數>, <全體와 部分>, <普通名詞와 固有名詞>의 範圍를 가리켜 이르는 이름인데, 北韓言語에서 나타나는 提喻의 두드러진 形態는 全體와 部分과의 換置이다. 즉, 全體가 部分을 代身하는 것으로서, 이는 뜻이 制限되고 縮小化되는 意味變化와 直結된다. 다시말하면 어떠한 名稱이 指示하는 의미가 그 全體的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느 部分의 특정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制限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 경비대 → 조선인민경비대
- 렬사 → 혁명렬사
- 로동당 → 조선로동당
- 로력영웅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력영웅
- 공화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계획 → 인민경제계획, 국가계획
- 당 → 조선로동당
- 대표회 → 당대표회
- 정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 조합 → 협동조합
- 최고사령부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 회상기 →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 요새화 → 전국요새화
- "인터나쇼날" → 국제공산당
- 전적지 → 혁명전적지

#### 4. 格上·上昇化 (elevation)

意味變化의 결과 語彙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意味價值가 上昇하는 것을 이른다. 즉, 語彙의 意味가 본래의 原意보다 美化, 崇高化, 善良化, 柔軟化, 待遇化된 전반적인 格上을 總括하여 上昇化라고 하는 것이다.

北韓語의 語彙에서 散見되는 意味의 格上은 역시 김일성 偶像化나 革命思想과 建設事業의 絶对觀에 따라 意圖的으로 價值를 부여한 語例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革命的 투쟁 의식에 저해되는 요소나 사조들을 배격할 목적으로 意味價值를 格下시킨 語例들도 많이 볼 수 있다.

○ 資本主義, 封建主義를 否定

	< 韓 国 >	< 北 韓 >
경 찰	사회공공 안녕질서를 위한 기관	인민에 대한 감시, 강제징벌의 특별 무장부대
고 용	삿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것	착취계급에서 근로자들을 <u>착취</u> 하기 위해 품을 사는 형식으로 노동자 농민을 부리는 것
관 료	관리들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인민을 억압착취하는데 복무하는 고급관리
민족주의	민족의식을 제일의로 민족생활의 확립·발전을 정치문화의 최고목표로 하는 주의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민족을 멸시·배격하고 민족사이에 불화·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적 사상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주의	주권을 쥔 계급이 자유·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u>계급적 독재</u> 의 측면

	< 韓 国 >	< 北 韓 >
박 애	온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함	근로대중과 피압박민족의 계급적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계급을 초월해서 차별없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선을 베풀 것을 떠드는 착취 계급, 특히 제국주의 "부르조아"대변인들의 <u>기만적·반동적</u> 구호
백만장자	재산이 썩 많은 자	근로인민을 착취,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놀고 먹으며 더 많은 치부를 추구하는 자본가 놈
사 환	심부름을 하는 관청·회사의 심부름꾼	착취계급에 빌붙어 <u>착취침략</u> 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
소 작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음	고리의 소작료를 <u>지주</u> 에게 착취당하면서 농사를 짓는 일
수 전 노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줄 모르는 자	돈을 모으기 위해 방법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색하고 악독한 <u>착취자</u>
신 사	품행·예의가 바르고 학력기풍을 갖춘 남자	" <u>부르조아</u> " 계급의 생활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남자를 지배계급에서 부르는 말
자 본 가	기업을 경영,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	자본을 가지고 임금노동자를 고용, 잉여가치를 <u>착취</u> 하는 자

	< 韓 國 >	< 北 韓 >
잡 세	무명잡세, 잡종세	반동통치배들이 인민들을 <u>착취</u> 하기 위한 잡다한 세금
재 즈	독특한 무도음악	<u>반동적 "부르쵸아"</u> 음악 조류의 하나로서 변태적 음악
전 매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재화를 판매 생산 독점하는 것	자본주의 재정수입을 늘일 목적으로 일정한 대중소비품, 기호품의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자본주의적 <u>착취형태</u>
점 장 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업을 하는 사람	점을 쳐 인민들을 기만하고 돈과 재산을 빼앗는 업을 하는 자
정 권	정치상의 권력	<u>계급적 독재</u> 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
조 차 지	타의 영토내 지역을 빌어 어느기간 통치하는 땅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영토 일부를 일정한 기간 빌리는 강탈된 지역
주식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이 공동투자하여 노동계급근로대중을 <u>착취</u> 하는 기업형태
중소기업가	중소규모의 기업을 하는 사람	중소규모의 자본으로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u>착취</u> 하는 기업가

	< 韓 国 >	< 北 韓 >
지 주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사람	땅을 가지고 농민에게 소작을 쳐 지대형식으로 농민의 노동을 <u>착취</u> 하여 사는 기생적인 사람, 기본착취제급
징 병	국가가 장정에게 병역의무를 과해 징집·복무시키는 일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자들을 강제로 반동적인 군대에 끌어가 는 것
징 역	기결 죄인을 구치하여 노역에 복무시키는 것	지배제급의 반동통치제도를 유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혁명가, 인민들을 잡아 가두고 탄압하는 "부르조아" 독재 수단 의 하나
제국주의	군사·경제적으로 타국을 정복하여 영토·권력을 넓히려는 주의	<u>착취와 약탈</u> , 침략과 전쟁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 독점과 사회제급적 모순과 부패가 극도에 이르는 망해가는 단계의 자본주의
천 석 군	천석을 추수하는 부자	농민을 가혹하게 <u>착취·약탈</u> 하여 천석곡식을 거들만큼 많은 땅, 재산을 가진 큰 지주
청 부 업	도급으로 일을 맡아 하는 업	남의 자본을 빌어 노동자들을 고용, 일을 도급으로 맡아 이윤을

	< 韓 国 >	< 北 韓 >
치 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	중간에서 <u>착취</u> 하는 업 착취계급들이 더욱 배를 불리기 위해 인민들을 <u>착취</u> , 재산을 늘리는 것
타 작	지주와 소작인이 거둔 곡물을 어떤 비율로 갈라 가지는 소작제도	지주들이 농민에게서 마당질한 곡식을 소작료로 빼앗아 가는 <u>착취형태</u>
향 교	시골에 있는 문물과 거기에 부속된 옛날 학교	봉건사회국가가 지방에 차려놓았던 교육기관으로 봉건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봉건유교사상을 퍼뜨리는 거점
형 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범죄자의 투쟁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형 사	형사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	반동적 제도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사를 잡아들이는 반동적인 경찰놈
휴 교	학교의 과업을 한 동안 쉬는 것	반동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학교의 교수사업을 한 동안 중지하는 것
아 씨	젊은 부인을 그 아래 계급 사람이 부르는 호칭	<u>착취자들의</u> 젊은 부녀자

	< 韓 国 >	< 北 韓 >
유 지	좋은일에 뜻이 있는 사람	어느지방에 일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는 반동적 지배계급 출신의 인물
유 흥	흥취있게 넘	<u>착취계급</u> 의 향락을 위한 놀음, 놀이
이 민	자기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 사람	통치계급이 일정한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제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결과, 그곳에 강제로 끌려가 살게 되거나 그런 사람
임 금	군주국가의 원수, 왕	대로 몰려가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u>착취계급</u> 의 최고통치자, 왕
임금노동	노동자가 보수를 받고 하는 노동	자본가에게 얽매어 땀땀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는 노동
잉여가치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와 그 지불한 임금과의 차액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u>착취당</u> 하는 가치

○ 反革命的 風潮를 排擊

	< 韓 国 >	< 北 韓 >
목 가 적	전원생활을 주제로 하는 것	<u>혁명적</u> 기백이 없이 안온하고 한가로운 것을 비김
무풍지대	탄곳의 재난이 미치지 않아 평화롭고 안온한 곳	낡고 <u>부정한</u> 것에 대한 투쟁이 불활발하여 침체되고 안온한 상태, 환경
선 풍	사회에 돌발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	<u>반동적</u> 검거, 폭압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채동
숙 명	날때부터 정해진 운명	어떤 힘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u>반동적</u> , 관념론적, 종교적 견해
자연주의	(문) 인간생활의 추악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을 본지로 하는 주의	<u>반동적</u> 인 부르조아 문학예술 조류의 하나
좌 경	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좌익으로 기울어짐	<u>반혁명적</u> 본질을 가리며, 공산주의자를 가장하여 혁명적인듯이 떠드는 기회주의 반혁명주의



○ 宗教를 否定

	< 韓 国 >	< 北 韓 >
교 회	종교신앙을 같이하는 이 들의 조직체	정치적 비호밑에 근로자들의 계 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 교 리와 종교사상을 선전하는 거점
목 사	기독교회의 교직자	예수교의 거짓된 교리를 해설· 선전하고 예배를 지도하며 교회 를 관리하는 직의 자
선 교 사	종교를 널리 퍼는 사 람	예수교 선교의 명목으로 타국에 파견, 종교의 탈을 쓴 침략앞잡 이
설 교	종교의 교의를 설명하 는 것	억지로 설복시키려 같은 내용의 판박이말을 자꾸 늘어 놓는 것
성 경 책	기독교의 교리를 적은 책	예수교의 허위적·기만적 교리를 적은 책
신 부	천주교의 사교자	종교선전을 위해 인민계급적 각 성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킴으로서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 는 자
신 학	기독교원리를 조직적으 로 연구하는 학문	관념론적 세계관에 기초, 종교적 도덕을 합리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비과학적인 학문
십 자 가	예수가 못박혀 죽은 표상으로 예배의 대상	예수교의 위선과 박애의 위장물

	< 韓 国 >	< 北 韓 >
저 승 절	사람이 죽은뒤 혼령이 간다는 곳 불도수행을 위해 중들 이 사는 곳	불교에서 꾸며 낸 사람이 죽어 났이 간다는 비현실적인 곳 중들이 부처를 놓고 종교 탈을 쓰고 인민을 기만 착취하여 기 생생활을 하는 곳
조 물 주	우주 간에 만물을 지 은 신	만물을 지은 신, 근로대중을 속 이기 위한 허황된 존재
종 교	초인간적·초자연적 힘 에 대해 인간이 경외 존중·신앙하는 일의 총 체	신이 있다며 맹목적으로 믿고 숭 배하는 것
중	불타에 귀의, 불도를수 행하는 사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을 기만· 착취 기생하는 자
지 옥	죄업으로 가서 나게 된 다는 지하의 감옥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 착취를 합 리화하며 반동적 통치체제와 범 질서를 절대 순종하도록 꾸민 것
천 당	천국의 당사	반동통치자들이 계급적 각성을 흐 리게 하고, 착취사회의 현실에서 외면케 하려고 꾸며낸 기만적 비 현실적 세상
하 느 님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 하는 초월 절대자로서 의 신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속 명론을 강요하려고 꾸며낸 하늘에 있 으면서 세계의 모든것을 다스린다는 신

## 6. 隱喩 (metaphor) , 象徵化 (symbolization)

隱喩와 象徵은 轉移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對象物의 類似知覺에 의해 形成되는 比喩의 하나이다. 이것은 人間의 心理作用 중에서도 聯想心理 (association)와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두 集團이 처해 있는 言語社會의 構造的 差異는 聯想의 對象을 變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北韓語에서 隱喩나 象徵에 의해 意味가 轉移된 것은 역시 그 元觀念이 革命과 建設事業에 연결되어 昇化된 것과 제국주의 착취계급에 關連되어 卑下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뜨다 : 약화 · 고립 · 멸망시키다.

※ 미제 각을 뜨다.

길동무 : 사상적으로 동요, 투쟁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개 : 민족 계급적 원수의 더러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

개싸움 : 계급적 원수끼리 벌이는 더러운 싸움

들끓다 : 혁명적 열의와 정열이 넘치다.

등대 : 혁명투쟁의 앞길을 환히 비춰 줌

대포밥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끌려 나가 개죽음을 당하는 군대

마굴 :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통치배들이 틀고 앉은 소굴

머리 : 사상의식

발굽 :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통치집단의 압제 · 억압

보검 : 혁명과 건설에 이용되는 위력있고 귀중한 수단 · 무기

보물고 : 사상이론, 과학문화 발전에서 빛나는 공헌을 할 가치있는 것들만이 간직되는 축적

기수 :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  
 불도가니 : 혁명의 정열이 들끓는 사회환경  
 불사조 :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  
 불장난 : 제국주의자 앞잡이들이 침략적 전쟁의 불을 지르는 행동  
 불길 : 전쟁에 불을 지르는 것  
 불한당 : "파쇼" 악당, 군사강패  
 불다 :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당과 수령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것  
 불은기 : 노동계급의 혁명 사상을 상징하는 깃발  
 비적 : 타국에 불법으로 기어 든 침략자  
 빛발 :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는 혁명사상  
 백색 : 반혁명을 상징  
 백색 "테로" : 혁명세력에 대한 반혁명의 정치적 폭력 행위  
 살륙장 :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통치계급이 죄없는 인민을 마구 죽이는 살벌한 곳  
 살인강도 (살인귀, 살인마) :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 악당놈들  
 승냥이 법칙 : 착취·약탈·침략전쟁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생활법칙  
 새벽 : 혁명의 새 시대가 다가오는 무렵  
 새세대 :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세대  
 새벽길 : "마르크스·레닌"의 기치 밑에 진행되는 혁명의 길  
 새세상 : 착취와 억압이 없는 좋은 세상  
 생지옥 : 지배계급의 혹심한 착취와 억압으로 근로인민의 생활이 말

할 수 없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착취사회

세포 : 당원들의 당생활 거점·군중을 당들에게 튼튼히 묶어 세우고 군중 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 단위인 당의 기층조직

자라나다 : 정치·사상적으로 발전되고 커지다.

잡귀신 : 인민대중의 전진을 가로막고 혁명·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주는 종파주의, 기회주의,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잡탕말 :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민족어 말살정책과 사상문화적 침투로 말미암아 언어의 민족적 특성이 사라지고 여러가지 외래어들이 섞여 어지러워진 말

전쟁놀이 :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삼아 하는 것

전쟁은상 : 위험한 침략적 전쟁세력이 자라나고 있는 곳

고열노동 : 높은 열이 있는 작업조건에서 힘들게 하는 생산노동

중심고리 : 혁명투쟁 건설사업에서 복잡하게 나서는 과업들의 연쇄중 어느 한 과업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과업들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중요한 고리

중하 : 혁명·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무겁고 중대한 책임

사자밥 : 죽음·주검

산아 : 시련이나 투쟁을 통하여 세상에 새로 태어난 존재

신들메 : 어떤 일에 각오와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

지상낙원 : 노동계급과 당의 수령 영도 밑에 인민들이 이룩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지옥살이 : 더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런 착취사회의 생활

짚어대다 : 적들이 기관총이나 포 같은 것을 자꾸 쏘아 대다.

- 제편잡이 : 반동들이 인민과 혁명을 반대하고 못된 흥계를 꾸미다가 제  
 놈들끼리 잘못 알고 해치며 손실을 주는 것
- 천리마 : 근로계급들의 혁명적 기상을 나타냄
- 천정부지 : 반동통치자들의 반인민적 시책으로 물건값이 엄청나게 자꾸  
 올라 가는 것
- 초토화 : 제국주의 침략군대들이 감행하는 모조리 파괴하고 불사르고  
 죽이는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군사행동
- 총알 (탄알)받이 : 제국주의 착취자들이 침략적 목적으로 전선의 맨 앞  
 에 희생물로 내세우는 고용군대, 그 대상
- 탄생 : 노동계급의 당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구들이 생겨남
- 태양 : 노동계급, 인민대중에게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시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독립과 번영으로 이끌어 주시며, 끝없는 희망과  
 행복을 안겨 주시는 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받  
 드는 위대한 영도자
- 항도성 :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로 이끌어 주는 존  
 재
- 혁명적 폭풍우 : 혁명의 불길이 지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
- 흡혈귀 :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노력을 악착스럽게 착취  
 하는 착취자나 인간 학살을 일삼는 제국주의 약탈자
-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 제국주의 자들이 제놈들이 직접 도장을 누  
 른 국제협정이나 조약같은 것을 뒤돌아 서서는 파렴치하게  
 어기고 짓밟음.

## 7. 退化·轉訛

北韓語에서 語彙가 지닌 原意가 退化되고 原意와는 거리가 먼 意味로 轉訛된 語例도 散見된다.

例컨대, 「방불하다」는 原意가 「그럴싸하다」, 「비슷하다」, 「근사하다」 등으로 풀이되는 것이 北韓에서 「눈에 삼삼하다」의 意味로 轉訛되었고, 「부아」는 본디 「허파」 「폐장」을 가리키던 것이 「노엽거나 분한 마음」이 되어 버렸고, 「모름지기」도 「반드시, 마땅하」의 의미를 가지던 것이 北韓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로 바뀌었다.

더우기, 北韓語의 語彙 中에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혁명과 건설사업,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 발전에 관계되는 다수의 어휘들을 特定人인 김일성의 談話 中에서 발췌하여 辭典的 意味로 定義하려는 策動이 있다. 「조선문화어사전」에 수록된 이와같은 語彙만도 수백에 달하는데, 이는 通時的으로 伝授되어 온原意가 人工적으로 埋沒되고, 조작된 의미를 絶對視함으로서 轉訛를 誘導하는 위태로운 劃策이다.

이처럼 語彙意味를 한個人的 생각으로 定義·規定하여 政策的으로 標準化하려는 것은 個人 偶像化를 피하고 人民의 思想改造를 圖謀하려는 意圖로 간주된다.

그 중 語例 몇 개를 들어 그 出典을 밝혀 보겠다.

가정 :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3권 216 페이지)

공업화 : 「공업화라는 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계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혁명을 하는 것입니다」(김일성 「청소년 사업

과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382 페이지)

교육 :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3 페이지)

규정 : 「규정이라는 것은 다름아닌 집단생활을 하는 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3권, 530 페이지)

당세포 :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어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 조직입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 5차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126 페이지)

주체 : 「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원칙과 다른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2권, 500 페이지)



## Ⅳ. 異質化의 樣態 및 原因分析

### 1. 語彙 形態

#### 가. 醇化運動과 말다듬기

分断 35年間 政治的, 文化的, 地理的 断絶속에 南北韓語가 語彙의 形態問題에 관심을 기울여 온 方向은 醇化運動과 「말다듬기」이다. 이러한 運動은 南北韓 공히 우리의 固有한 語彙들을 開發하고 종래에 汎濫하고 있는 外来語와 漢字語를 拂拭하려는 民族主体意識에 直結된 意識運動의 하나이기도 하다. 즉, 「국어사랑이 나라사랑」이 된다는 南北韓의 공통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北韓에서는 그 動機부터가 소위 김일성의 主体言語思想을 말다듬기의 主導的인 原動力으로 浮上·浮刻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差異가 誘發된다.

韓國의 國語醇化 目的과 意圖는 대체적으로,

- ① 民族思想의 統一
- ② 國土의 政治的 統一
- ③ 文化의 振興·發展
- ④ 精神文化의 基本
- ⑤ 民族 主体性 確立

등으로 集約되는데 比해, 北韓의 말다듬기는 아래와 같은 意義를 지니고 있다.

- ①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언어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함」

- ② 「조선말을 더욱 혁명적으로 세련된 아름다운 민족어로 발전시킴」
- ③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④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함」
- ⑤ 「문화어를 더욱 혁명적으로 세련시키고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함」(김광의, 문화어학습, 창간호, 1968)

이는 言語自体를 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성취하고 김일성을 偶像視하는 수단으로 言語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外来語와 漢字語를 다듬는 문제만 해도, 우리 固有語에 대한 애착보다는 「그것이 낡은 통치계급의 시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입장과 반인민적인 사상관점의 산물이며, 우리 민족어의 주체적인 발전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요소」이라는 排他的인 意圖가 더 짙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다듬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殺菌」을 「균 강그리 죽이기」로, 「応接室」을 「손님맞이방」으로 바꾼 것 등은, 漢字語가 固有語로 순수해 졌다는 의미밖에는 言語自体의 本質적인 것에는 아무런 유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들은 音節이 너무 늘어나서 發音이나 書写, 機械化의 努力經濟에 크게 逆行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억지 造語에 의한 생소감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 北韓의 言語政策 자체가 그들의 政治形態처럼 強制性和 拘束性を 띠고 있는데, 무조건 인민들에게 規定化하여 強壓적으로 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言語에 있어서는 排除되어야 한다. 言語는 神이 人間에게 준 고귀한 선물이므로 자연스런 推移와 發展이 바람직할 뿐, 人工的 造作에 의한 強制性이 介入될 수 없는 것이다. 言衆에게 共感을 얻지 못하는 新

造語가 濫造되어 강제 사용되다가 그 어휘에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韓國에서도 解放直後「날뜰」(비행기), 「말광」(사전), 「넘보라살」(자외선), 「남꽃가루받이」(타가수분)가 造語되어 당시 국정교과서에 까지 등재되었으나, 그게 몇해를 가지 못하고 消滅된 것을 보면, 言語는 言衆의 共感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예가 된다.

한편, 北韓에서 다듬어진 語彙 가운데는 單語의 單位全体가 固有語化하지 못하고 單語 중간이 잘려 다듬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漢字語가 그대로 남아 있는 반신불수의 인상을 주는 것이 많다. 예컨대, 言語分野의 專門用語「홀母音」은 「單母音」을 다듬은 것인데, 차라리 그냥 두던지 고칠 바에야 「홀홀소리」로 하는 것이 좋고, 「느낌文」(感嘆文)도 마찬가지로 「느낌월」이라 하는 것이 산뜻하다.

특히, 北韓의 「말다듬기」에서 받는 인상은 強制的이고 政策的이란 비호 아래 너무 그 作業을 서둘렀던 졸속의 느낌이 있다. 言語는 人間이 그의 祖上으로부터 伝受받아 쓰다가 다시 그의 後孫들에게 遺与하여 주는 有機的인 生命体이다. 그러므로 言語政策은 오랜 기간을 두고 分析하고 研究・綜合하는 인내와 철학을 가지고 実行되어야 한다. 그 예로서 外國의 言語醇化만 하더라도 독일은 17C에 시작해서 1940년대 와서야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고, 불란서는 16C에 提唱되고 17C에 겨우 그 成果를 보게 되어 오늘까지 면면히 추진되고 있는 터이다.

北韓의 「말다듬기」作業의 方向은 무엇보다 韓國의 言語를 考慮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言語의 統一은 民族의 統一이요, 民族意識의 統一이라는 大前提를 沒覺해서는 안된다.

나아가서 古語의 再生開發과 方言 中에도 語感과 語形이 아름다운

것은 活用해서 採用하는 作業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 位相的 差異

北韓語의 語彙가 位相的 差異에서 南韓語와 異質化된 것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異質化를 誘發하는 位相의 範疇부터 살펴보면, 北韓의 政治體制, 經濟形態, 社會構造 등의 現象的인 位相과 소위 方言差에 의한 地域的 位相, 그리고 特殊集團의 慣用的 表現에 관련된 言語狀況의 位相 등을 들 수 있다.

言語는 社會의 반영이며, 社會的 所産이다. 北韓集團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인 諸條件과 現象들은 그에 부응하도록 言語를 變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말이란 혁명사업의 힘있는 무기」라고 하는 구호를 실현하고 있고, 政治, 經濟, 社會의 諸政策에 대하여 言語는 하 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造語되고 派生되는 政治用 語, 經濟用語, 軍事用語들은 이른바 「정치용어사전」을 편찬하도록까지 多 量化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政治理念과 경제정책에 관한 生소한 特殊語, 軍事戰略上 또는 資本主義 비난선전을 위한 特異한 語彙들이 濫 造되어 있어, 言語를 통한 南北韓의 分裂을 高潮시키려는 그들의 劃策 을 엿볼 수 있게 한다.

方言的 差異에 의해 異質化된 語彙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다지 심각 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 地域 內에서 方 言은 兪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南韓語 속에서도 地域方言의 差異와 勢 力은 아직도 강하다고 인정되는 터이기 때문이다. 이는 地域住民들의

보다 빈번한 접촉과 교류, 또한 '매스콤' 등의 영향으로 그 勢力이 점차 약화되는 展望을 보이고 있다.

北韓方言은 대체로 東北咸鏡方言群과 西北平安方言群 사이에 큰 差異가 있을 것으로 予想되는데, 소위 그들의 「문화어정책」이 西北方言群 中の 平壤말을 中心으로 표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東北方言이 무시되고 있는 現狀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 대로 咸鏡方言 중에도 좋은 語彙는 발굴·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南北韓의 言語狀況의 位相은 言衆의 慣用的 表現의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이도 역시 言語는 환경적 상황적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그들 나름의 特殊한 言語狀況에 순응하는 慣用語가 登場할 것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 다. 文法的 差異

北韓의 文法研究의 實態는 그들의 政治体制와도 같이 융통성 없는 規範文法의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韓國의 文法研究가 解放을 前後로 傳統的 規範文法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와 1970년에 오면서 서구의 構造主義 文法과 生成文法의 多樣하고 참신한 方法論과 學問的 理論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온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同一構造의 同一言語가 쉽게 그 文法規則이 변할 리는 없는 것이며, 다만 그 規則을 기술하는 方法과 解釋에 있어서 多少 變貌가 생겼을 뿐이다.

이 중에 語形에서 나타나는 兩方의 文法의 差異는 派生法 등의 造語上의 문제와 使動法·被動法 등의 形態論의 適用範圍의 差異에 불과하다.

특히, 接尾辭 '中에서도 副詞化接尾辭 「이」 「히」의 分布가 北韓語에서는 매우 넓어 語根과의 統合制約을 거의 받지 않는데, 이는 南韓語에서 「-하게」로 活用하던 語彙를 代用하고 있다. 形容詞派生接尾辭「스럽다」 「하다」 「차다」 「롭다」 「지다」 등도 그 위의 語基와 統合하는 樣態에서 南韓語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動詞派生接尾辭「하다」 「되다」 「거리다」도 마찬가지이다.

北韓語彙의 分布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派生語彙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接辭를 최대한 生産的으로 活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派生된 어휘들도 대체로 政治的 문제와 결부되어 그 형태가 散亂하며 수효가 많아진 것이다.

被動法, 使動法에서 보여 주는 兩方의 差異도 역시 北韓語에서 補助語辭「이」 「히」 「리」 「기」 등의 分布가 넓다는 점이다. 이는 南韓語의 使動法「-게 하다」와 被動法「-어 지다」의 영역을 代用할 수 있는 分布를 나타내는 것이다.

#### 라. 音韻的 差異

兩方語의 音韻現象에 의한 語彙·語形의 異質化는 文法的 現象에 의한 差異보다 더 뚜렷하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兩方語의 音韻組織이나 體系가 달라졌거나 音価가 변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체로 北韓에서는 表音式의 表記法을 採用하고 있기 때문에 同化現象이 유발되는 音韻環境에서는 同化된 音価대로 적는 것이 一般的이다. 즉, 母音變異된 것, 「l」母音順行同化된 것, 前舌母音化된 것 등이 그것이고, 子音에 있어서도 濃音化된 것은 音価대로 적는 것이 많다.

이 밖에도 母音交替에 의한 語形, 音節이 倒置된 語形, 音節이 縮約된 語形들이 많이 나타나며, 「사이스」에 의한 絶音表示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頭子音法則을 폐지한 것은 意圖的인 異質化의 劃策이며, 모든 것이 努力經濟나 簡素化의 原理를 따르면서도 頭音 「ㄹ」을 許容하는 것은 이에 逆行되는 것이며, 語音政策에 있어서 一貫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一面이다. 또한 表音式 表記法을 取하면서도 「ㄹ」下 硬音化現象을 排除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例의 하나이다.

## 2. 語彙意味

言語에 있어서 意味는 傳達하고자 하는 内容이며 根本되는 言語의 中核이다. 形式인 音聲이나 文字도 결국은 意味를 的確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手段이요 媒体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言語의 意味分野는 다른 어느 分野보다 中樞的인 比重을 가진 것이다.

南北韓의 言語比較에 있어서 形式的인 表記法, 文法, 音聲面의 隔差보다는 意味의 隔差가 더 심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意味는 一朝一夕에 言衆의 뇌리에서부터 變改시킬 수 있는 可變的인 것이 아니며, 특히 聯想이나 思考, 判斷, 推理, 分析, 綜合 등의 心理的 作用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複雜·微妙한 構造를 가지고 있다.

本稿에서 調査·分析한 北韓語 語彙意味의 變化樣相은 一般的인 意味에서 特殊化되고, 意味感이 縮小化된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 縮小·特殊化의 理由나 方向은 政策的이고 意圖的인 것으로서, 소위 김일성 個人 偶像化에 따른 特殊化와 革命·建設事業에 관련된 特殊化, 그

리고 政治宣傳 및 資本主義의 비난을 위한 特殊化가 그 전역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고상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의미를 지닌 語彙는 김일성의 專有物로 制限·縮小시켰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열렬한 기상이 있는 語彙는 革命·建設事業에 관계되도록 制限시켜 놓았다. 이에 反한 참혹하고 비참하고 억압적 의미를 가진 語彙는 미국 및 대남비난의 정치선전용어로 特殊化시켰다.

이와 더불어 意味의 價値에 있어서도 본래 낮은 價値의 意味가 格上·上昇化되는 것은 모두 김일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革命투쟁과 革命투사들과 관계되도록 지칭하였고, 이에 反해 本意에서 의미가 추락·격하된 語彙들은 자본주의·제국주의 등 소위 그들의 비난대상인 '부르조아' 착취계급 사회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宗教 등에 대한 不正的 의미에서 誘導된 것이다.

北韓의 閉鎖的 言語社會에 있어서는 어떤 特殊한 意味를 가진 語彙가 一般化된다거나 그 意味域이 擴大되는 경향은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다. 게다가 特殊化에 의한 縮小현상은 提喻의 意味變化와 結付되면서 全体가 部分을 나타내는 많은 例들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北韓語에서는 隱喻나 象徵化에 의해 轉移된 異色的인 語彙意味들도 發見된다. 이도 좋은 意味로 比喻되는 것은 革命과 建設事業 및 階級鬭爭에 관계를 맺고 있고, 나쁜 意味는 미국을 中心으로 하는 資本主義 國家를 비난하는 것에 집결되어 있다.

北韓語에서 妄動스러운 처사는 一般的으로 쓰이고 있는 어느 語彙를 特定個人(김일성)의 談話나 語錄 中에서 발췌하여 辭典的 意味로 定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專制國家에서 「짐은 國家라」고 했던 폭군독재국가를 상회하는 個人 神格化에 基因되며, 이러한 策動은



더욱 南北간의 統一의 길을 요원하게 하는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言語의 意味는 人間의 心理와 自然스런 趨勢에 의해 轉義되어 가는 것인데, 北韓言語에 있어서 이와같은 人爲的이고 造作的이고 政策的인 變化의 誘導는 「전인민」에게 革命的 투지를 지니게 하고 反革命的 반동 계급에 대한 투쟁을 조장하는 「階級敎養」을 圖謀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와같은 의도에서 抽出되는 그들의 기본적인 지표를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 쓰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에 대한 신격·우상화
- ②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실현하여 「부르조아」 사상에 항거
- ③ 계급투쟁에 대한 투쟁정신 고취
- ④ 제국주의 착취계급을 반대, 투쟁하는 정신 앙양
- ⑤ 자본가들에 대한 적대감, 그들에 대한 투쟁
- ⑥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함양

## V. 言語統一의 展望과 그 對策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다」(「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자」 <문화어학습 1981, 2호>)

- ① 「무엇보다도, 국토양단과 민족분렬의 36년 동안에 생기게 된 언어규범에서의 차이를 시급히 극복하고 통일적인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발음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규범의 통일과 개선문제를 해결하며 학술용어를 비롯한 용어의 통일, 민족어의 순결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휘정리와 말다듬기, 한자폐지 문제를 풀며, 통일적인 조선말사전의 편찬과 문법책의 편찬, 나아가서는 민족글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다같이 연구하여야 한다.」
- ③ 「우리는 또한 조선말의 형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주체성 있게 연구하며 체계화하여,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금수강산 온나라의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찾아 다니며 우리 말의 귀중한 방언자료와 고장이름(지명)을 전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묻혀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상은 최근에 발간된 北韓語学雜誌인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北韓이 韓國과 共同으로 言語를 研究하고 發展시켜야 한다는 골자이나, 이것이 결코 言語統一의

摸索을 위한 提議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北韓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文化語 꽃피우기」의 운동으로 치달리면서, 現在 南韓語를 소위 「잡탕말」이라 하여 전적으로 認定하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南北의 言語學者들이 共同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은 文化語가 革命的으로 세련되고, 文化的으로 다듬어졌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고, 당과 수령의 주체적 사상을 구현한 민족어라 하여 조국이 통일될 때, 南北韓이 함께 써야 할 言語라고 斷定하는 것을 보면, 공동연구가 아닌 그들의 言語로써 劃一化 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러한 劃策은 우리 民族이 걸어 온 歷史를 沒覺한 소치이다. 우리나라가 歷史的으로 民族史的으로 꽃을 피우게 된 新羅와 李朝의 都邑이 엄연한 韓國 땅이요, 言語도 당초 原始朝鮮語에서 北方系統의 言語와 南方系統의 言語가 分派된 후 北方語는 高句麗語를 낳고 日本語에 영향을 준 뒤로는 북쪽 滿洲 땅으로 물러갔고, 韓半島의 言語는 어디까지나 南方系統인 新羅·百濟語와 뒤이은 高麗語가 中心이 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순수한 생각으로 언어의 공동연구와 언어통일의 의지를 가졌다면, 남한어의 歷史的 比重과 서울 標準語를 위시한 韓國의 地域方言에도 깊은 關心을 가지고 重視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言語의 共同研究 운운하면서도 계속 兩語의 異質化를 助長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들이 구호로만 平和統一을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땅굴을 파고 韓國의 瓦解劃策을 피하는 手法과도 같은 것이다.

筆者는 本 研究를 통해 그들의 言語政策의 꽃이요, 今後의 指針的 法典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문화어사전」 1050 페이지에 수록된 6만여

개의 語彙를 국어사전과 낱말이 대조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전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政治革命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에 가서 그들의 입장을 받아 들인다면, 言語와 政治革命이라는 각각 다른 次元을 서로 統一하자는 語不成說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 그들이 言語統一의 순수한 여망이 있다면, 言語에서 言語外的인 諸要素를 완전히 제거한 言語實體를 가지고 共同研究나 統一方案

(1977), 南北韓 言語概念의 異質化 研究, 国土統一院 調査研究室.

Chin-Wu Kim(1978), Linguistics &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Korean Studies 2, Hawaii.

Haugen, E.(1969),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in Linguistics edited by A.A. Hill.

Hymes, D.(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 Row.

Ray, P.S.(1963), Language Standardization, Mouton.

Sasse, W.(1979),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Since division of Korea, Koreanische Studien IV-1, Hawaii.

< 資 料 集 >

北韓言語政策資料集(1973), 極東問題研究所.

남북한 비교연구 논총(1976), 국토통일원.

조선문화어사전(1973), 사회과학 출판사, 평양.

문학예술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정치용어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문화어학습(1968 ~ 1981), Vol. 1 ~ 9, 평양.

로동신문(1978 ~ 1980)

민주조선(1978 ~ 1980)

摸索을 위한 提議라고는 해석되

「文化語 꽃피우기」의 運動으로 치는 , 現在 南韓語를 소극하게  
「당말」이라 하여 전적으로 認定하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南北의 言語學者들이 共同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  
의 주장은 文化語가 革命的으로 세련되고, 文化的으로 다듬어졌고, 노동  
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고, 당과 수령의 주체적 사상을  
구현한 민족어라 하여 조국이 통일될 때, 南北韓이 함께 써야 할 言  
語라고 斷定하는 것을 보면, 공동연구가 아닌 그들의 言語로써 劃一化  
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러한 劃策은 우리 民族이 걸어 온 歷史를 沒覺한 조치이다. 우  
리나라가 歷史的으로 民族史的으로 꽃을 피우게 된 新羅와 李朝의 都  
邑이 疉연한 韓國땅이요, 言語도 당초 原始朝鮮語에서 北方系統의 言語  
와 南方系統의 言語가 分派된 후 北方語는 高句麗語를 낳고 日本語에  
영향을 준 뒤로는 북쪽 滿洲땅으로 물러갔고, 韓半島의 言語는 어디까  
지나 南方系統인 新羅·百濟語와 뒤이은 高麗語가 中心이 되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순수한 생각으로 언어의 공동연구와 언어통일의 의지를 가졌  
다면, 남한어의 歷史的 比重과 서울 標準語를 위시한 韓國의 地域方言에  
도 깊은 關心을 가지고 重視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  
도 그들이 言語의 共同研究 운운하면서도 계속 兩語의 異質化를 助長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들이 구호로만 平和統一을 부르짖으면서 한편  
으로는 땅굴을 파고 韓國의 瓦解劃策을 꾀하는 手法과도 같은 것이다.

筆者는 本 研究를 통해 그들의 言語政策의 罅이요, 今後의 指針的  
法典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문화어사전」 1050 페이지에 수록된 6만여

국어사전과 낱말이 대조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전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政治革命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에 가서 그들의 입장을 받아 들인다면, 言語와 政治革命이라는 각각 다른 次元을 서로 統一하자는 語不成說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 그들이 言語統一의 순수한 여망이 있다면, 言語에서 言語外的인 諸要素를 완전히 제거한 言語實體를 가지고 共同研究나 統一方案을 提議해 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言語自体보다는 言語外的要素가 더 강한 文化語를 가지고 南北韓 言語統一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文化語는 北韓의 政治宣傳 道具요, 革命鬪爭의 方便으로 人工化되고 言語本質的 豊고한 資質이 망실된 言語이다.

더우기 김일성 個人 偶像化는 南北韓의 言語統一의 展望을 흐리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과는 어긋나게 어떤 개인을 종교나 미신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처럼 떠 받드는 것」

이상은 北韓 사전에서 「偶像化」를 풀이한 내용인데, 그들이 곳곳마다 김일성의 위대한 영도력과 혁명적 기상으로 전설적 영웅시하는 것은 偶像化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장차 南北韓의 言語統一 문제는 語形의 統一보다 意味의 統一이 더 切實한 難題로 대두된다. 文法體系, 맞춤법, 띄어쓰기, 發音法 등은 새롭게 최선의 기준을 設定하여 政策化하면 統一이 可能하나, 意味에 대하여는 그것이 不可能하다. 前述해 온 바와 같이, 言語의 意味는 오랜 세월을 두고 傳統的, 慣習的으로 言衆의 머리속에 支配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規制化한다고 可變的인 것이 아니다. 北韓

개의 語彙를 국어사전과 단란이 매조했다. 불리한 사실은 이 사전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政治革命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에 가서 그들의 입장을 받아 들인다면, 言語와 政治革命이라는 각각 다른 次元을 서로 統一하자는 謂不成說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 그들이 言語統一의 순수한 역망이 있다면, 言語외의 言語外의 諸要素를 완전의 제거한 言語实体를 가지고 共同研究나 統一方案을 提議해 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言語自体보다는 言語外的要素가 더 강한 文化語를 가지고 南北韓 言語統一 운동하는 것은 언의도단이다. 文化語는 北韓의 政治宣傳 道具요, 革命鬪爭의 方便으로 人工化되고 言語本質의 승고한 資質이 망실된 言語이다.

대우기 眞正性 個人 偶像化는 南北韓의 言語統一의 展望을 흐리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 마르코스·베닌·주의 觀點에서는 이곳나게 어떤 개인을 종교나 미신에

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처럼 떠 받드는 것」

이상은 北韓 사전에서 「偶像化」를 풀이한 내용인데, 그렇기 곳곳마다 眞正性의 위대한 영도력과 혁명적 기상으로 건설적 영웅시하는 것은 偶像化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장차 南北韓의 言語統一 문제는 語形의 統一보다 意味의 統一이 더 切實한 難題로 비추인다. 文法体系, 맞춤법, 띄어쓰기, 發音法 등은 特別의 注意의 기준을 設定하여 政策化하면 統一이 可能하다, 意味의 統一이라는 것이 不可能하다. 前述해 온 바와 같이, 言語의 意味는 오랜 세월을 두고 傳統的, 慣習적으로 言葉의 支配의 支配되는 것은 물론이요, 北韓의 規制化한다고 可羨의 인 것이 아니다. 北韓

撰者는 本 研究를 통해 그들의 言語政策의 實效, 今後의 指針的 法典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문화어사전」 1050 페이지에 수록된 6만여  
 으로는 方言을 파고 韓國의 瓦解政策을 피하는 手法과도 같은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들이 구호로만 平和統一을 부르짖으면서 한편  
 도 그들이 言語의 共同研究 운동하면서 계속 兩語의 異質化를 助長  
 도 깊은 關心을 가지고 重視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면, 남한어의 歷史的 比重과 서울 標準語를 위시한 韓國의 地域方言에  
 그들이 순수한 생각으로 언어의 공동연구와 언어통일의 의지를 가졌  
 쳤기 때문이다.

지나 南方系統인 新羅·百濟語와 韓語가 中心이 되어 이루어  
 영향을 준 뒤로는 북쪽 滿洲 땅으로 물러갔고, 韓半島의 言語는 어디가  
 와 南方系統의 言語가 分派된 후 北方語는 高句麗語를 받고 日本語에  
 國이 屬한 韓國 땅이요, 言語도 單초 原始朝鮮語에서 北方系統의 言語  
 리나라가 歷史的으로 民族史的으로 分派된 新羅와 李朝의 都  
 이러한 劃策은 우리 民族의 歷史를 沒覺한 소치이다. 우  
 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語라고 斷定하는 것을 보면, 공동연구가 아닌 그들의 言語로써 劃一化  
 구원한 민족어라 하여 조국이 통일될 때, 南北韓이 함께 써야 할 語  
 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고, 당과 수령의 주체적 思想을  
 의 主張은 文化語가 革命的으로 變換되고, 文化的으로 다음의 變고, 노동  
 南北의 言語學者들이 共同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  
 語말」이라 하여 單적으로 認定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文化語 芟피우기」의 운동으로 치달리면서, 現在 南韓語를 소위 「잡  
 模稜을 위한 提議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北韓은 지금 單사분란하게



進展되어야 할 것이다.

對話가再開되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진박한 論議가 저서의 提題, 一의 執念으로 가장 쉬운 作業부터 摸索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南北 그러나, 이러한 展望, 수익도 韓國은 인민의 근기를 가지고 言語統 모인다.

가 統一되지 않는 한, 言語統一의 展望은 많은 難點이 있을 것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兩方의 思想・理念的으로 統一되고 言葉의 意識構造 내리게 되고 結果를 기두게 되면 될수록 南北言語隔差는 더욱 遠隔化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展望한다면, 今後 北韓의 文化語政策이 뿌리를

않는 한 그 意味의 回鑾는 努力을 것이다.

것이 그들의 內의에 타당고결화되면, 意識構造와 思想體系가 變改되지 선전 등을 목적으로 原意가 縮小・特殊化, 格上・上昇化, 格下・墮落化된 語의 意味가운데 김일성 主張화, 혁명건설사업의 적용, 자본주의의 비난

(1977), 南北韓 言語概念의 異質化 研究, 国土統一院 調査研究室.

Chin-Wu Kim(1978), Linguistics &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Korean Studies 2, Hawaii.

Haugen, E.(1969),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in Linguistics edited by A.A. Hill.

Hymes, D.(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 Row.

Ray, P.S.(1963), Language Standardization, Mouton.

Sasse, W.(1979),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Since division of Korea, Koreanische Studien IV-1, Hawaii.

< 資 料 集 >

北韓言語政策資料集(1973), 極東問題研究所.

남북한 비교연구 논총(1976), 국토통일원.

조선문화어사전(1973), 사회과학 출판사, 평양.

문학예술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정치용어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문화어학습(1968 ~ 1981), Vol. 1 ~ 9, 평양.

로동신문(1978 ~ 1980)

민주조선(1978 ~ 1980)

語의 意味가운데 金印성 印章화, 魂명건설사업에 적용, 자본주의의 비단 선전 등을 목적으로 原意가 縮小·特殊化, 格上·上昇化, 格下·墮落化된 것이 그들의 보리의 타당고철화되면, 意識構造와 思想体系가 變改되지 않는 한 그 意味의 回歸은 어렵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展望한다면, 今後 北韓의 文化語政策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結果를 거두게 되면 南北言語隔差는 더욱 遠隔化 될 것이며, 따라서 兩方의 思想·理念的으로 統一되고 言衆의 意識構造가 統一되지 않는 한, 言語統一의 展望에는 많은 難點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展望 속에서도 韓國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言語統一의 執念으로 가장 쉬운 作業부터 摸索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南北 對話가 再開되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堅박한 論議가 서서히 提起, 進展되어야 할 것이다.

주로 派生法과 被動法, 使動法의 接辭 活用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北  
 ⑤ 南北言語가 文法規定의 差異로 語彙形의 異質化를 招來한 것은  
 로서 語彙不足을 補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된 相異語形도 많으나, 方言의 變異는 南北 双方에서 開發하여 생  
 ④ 北韓語에서 地域的 方言이나 言語狀況의 位相 差異의 의해 生成  
 化로 軋落된 面貌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

治用語, 經濟用語, 社會用語들이 汎濫하고 있다. 이는 言語가 政治道具  
 ③ 政治·經濟·社會的인 位相 差異로 말미암아 北韓에는 特殊한 政  
 治用語, 經濟用語, 社會用語들이 汎濫하고 있다. 이는 言語가 政治道具  
 化로 軋落된 面貌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

語나 專門用語는 南韓語보다 多量의 固有語가 採用·登場되고 있다.  
 ② 그러나, 역시 造語의 의한 營소한 語感을 주는 語彙, 造語法의  
 맞지 않은 語彙, 거나 漢字語 避避로 音節이 너무 길어진 語彙가  
 ① 北韓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言語政策은 주로 「말다듬기」로서,  
 外來語와 漢字語를 扞排하는 데 主眼點을 두었다. 그 결과, 日常生活  
 語나 專門用語는 南韓語보다 多量의 固有語가 採用·登場되고 있다.

많은 造語되었다는 것은 言語本質的인 發展의 逆行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1. 語彙形態의 相異性

지금까지 南北韓의 言語를 語彙中心으로 對比하면 語形과 意味에서  
 露出되는 異質性을 分析했다. 또한 異質化의 特徵과 要因을 抽出하고,  
 各々の 言語統一의 對한 展望과 對策의 對해·言及해 왔다.  
 그러면, 이상의 論及을 要約·整理함으로써 結論을 summarize 하겠다.

## VI. 結 語

들의 비단선전과 기만책동의 産物이다.

濟, 社會, 制度, 文化, 宗教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을 否定하는 그

⑤ 意味의 價值가 格下・墮落된 어휘는 계국주의・자본주의의 政治, 經

縮小化되어 誘發된 것이다.

의미를 가진 것을 kim 性 尙 상화와 革命・建設事業에 結付시킴으로써

④ 北韓語에서 意味의 價值가 格上・上昇化된 어휘는 원래 一般的인

制約的이란 사실을 단적으로 立證하는 예가 된다.

이는 言語社會學的으로 보아 北韓의 社會構造가 閉鎖的이며 人爲的이며

③ 北韓語에서 語彙意味의 領域이 擴大・一般化된 어휘는 매우 적다.

국주의, 자본주의 比난을 위해 生成된 意味特殊化도 상당 수가 있다.

建設事業에 制限結付시킴으로써 形成된 것이 많다. 또한 政治宣傳 및 制

② 縮小・特殊化는 주로 kim 性 個人 偶像化로 이뤄진 것, 革命과

人爲的。政策的인 制約에 의해 誘導된 것이다.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言語의 自然的인 推移에 의한 것이 아니라,

① 北韓語의 語彙意味는 南韓語에 비해 그 意味域이 縮小・特殊化되

## 2. 語彙意味의 相異性

傾向이 있다.

母音交替, 前舌母音化, 濃音化 等 同化나 變異된 音節대로 語形을 삼는

대체로 表音式 表記法을 採用하기 때문에, 母音變異, 「1」母音順行同化,

⑥ 音韻的 差異에서 야기되는 語形의 異質化에 있어서, 北韓에서는

그 結果 雜多한 派生語의 汎濫을 가져 왔다.

韓語에서는 接辭의 派生力에 지나친 生産性과 普遍性을 부여함으로써

⑥ 北韓語 가운데는 隱喻나 象徴의 意味가 軋意된 어휘도 많  
 다. 例로 指示內容이 崇高하고, 尊貴적이고, 熱烈한 것은 혁명·건설  
 등의 투쟁사업에 比되고 있고, 卑賤하고, 부정적이고, 卑열한 것은 계급  
 주의·자본주의의 제도나 특징에 比되고 있다.

특히 本 研究를 통해 進단할 수 있는 南北韓 言語統一의 展望은  
 現단계로서는 나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兩語가 語彙形態보다는  
 意味의 異質化가 甚 深化되어 있다는 사실과, 지금 北韓에서 政策的으로  
 로 명렬히 推進되고 있는 文化語 보급운동 때문이다.

北韓의 規範語인 文化語는 순수한 언어본질적인 機能을 망실당한 政  
 治革命的인 人工言語로서, 건일성을 喪失하고 인민에게 계급교양을 시  
 키기 위한 도구요, 무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文化語를 提  
 示하면서 南北韓 言語統一, 共同研究 운동은 本 前提부터 모순이요  
 불합리한 策動이다.

그러나, 反만년 歷史를 主導해 來는 韓國의 言語는 인내와 끈기를 가  
 지고 北韓의 德하의 言語外的 要素를 백제한 순수한 兩 言語를 가지고  
 와서 共同研究하고 統一의 實現점을 모색하도록 설득 시켜야 하는데 專  
 念해야 할 것이다.

또한 進단된 南北對話가 再開되면 兩方의 言語問題의 해결서도 심각  
 성을 가지고 논의 되어, 南北語가 甚 이상 격심한 異質化를 自招하지  
 않도록 그 對策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言語統一을 성취하는 方法의  
 德하의 眞正적인 對話의 길을 追求해 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敏洙 (1978), 北韓의 言語政策, 亜細亞研究 15.
- (1981), 北韓言語政策의 實施과 文化語, 「北韓」 10-9, 北韓研究所.
- 金英培 (1979), 北韓方言에 대한 考察, 「北韓」 8-5, 北韓研究所.
- 南広祐 (1970), 現代國語國字의 諸問題, 一潮閣.
- 李庸周外 (1975), 意味論, 玄文社.
- 李乙煥 (1976), 一般意味論, 開文社.
- 李恒九 (1979), 北傀俗下の 特異用語 (I)~(III), 北韓 10-9, 10, 11, 北韓研究所.
- 李炫馥 (1977), 南北韓語의 音聲學 및 言語學的 比較研究,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李熙昇(冠) (1972), 국어대사전, 民衆書館.
- 全在昊 (1973), 意味變化 序說의 一端, 「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通文館.
- 趙圭高 (1979), 北韓語 「문화어」에 관한 研究, 「統一問題研究」 8, 嶺南大 統一問題研究所.
- 千時權外 (1971), 國語意味論, 叢雪出版社.
- 최석규(역) (1963), 단말의 생태, 단어의 의미론적 연구, 문교부.
- 崔鶴根 (1979), 國語方言學辭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國語의 醇化와 教育,
- 洪妍淑 (1973), 南北對話와 言語隔差, 「統一問題研究」 3, 嶺南大 統一問題研究所.

(1977), 南北韓 言語概念의 異質化: 研究, 國土統一院 調査研究 室。

Chin-Wu Kim(1978), Linguistics &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Korean Studies 2, Hawaii.

Haugen, E.(1969),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in

Linguistics edited by A.A. Hill.

Hymes, D.(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 Row.

Ray, P.S.(1963), Language Standardization, Mouton.

Sasse, W.(1979), North Korean Language Policy Since divi-

sion of Korea, Koreanische Studien IV-1,

Hawaii.

< 資 料 集 >

北韓言語政策資料集(1973), 極東問題研究所。

남북한 비교연구 논총(1976), 국토동일원.

조선문화어사전(1973), 사회과학 출판사, 평양.

문학예술헌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정치용어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문화어학들(1968 ~ 1981), Vol. 1 ~ 9, 평양.

포동신문(1978 ~ 1980)

민주조선(1978 ~ 1980)